

## 참고문헌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엄기호. 2009.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인문학의 눈으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얼굴. 낮은산.

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조한혜정. 2006.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국가’적 패러다임을 전환을 위한 시론” <사회과학논집> 37(1).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Constable, Nicole. 2007, Maid to Order in Hong Kong: Stories of Migrant Workers (2nd Ed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Freeman, Caren. 2011. Making and Faking Kinship: Marriage and Labor Mig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Harion, Yan. 2008. New Masters, New Servants: Migration, Development, and Women Workers in China. Duke University Press.

Min, Sung Kil, Suh, Shin-Young, Song, Ki-Jun. 2009. “Symptoms to Use for Diagnostic Criteria of Hwa-Byung, an Anger Syndrome.” Psychiatry Investig.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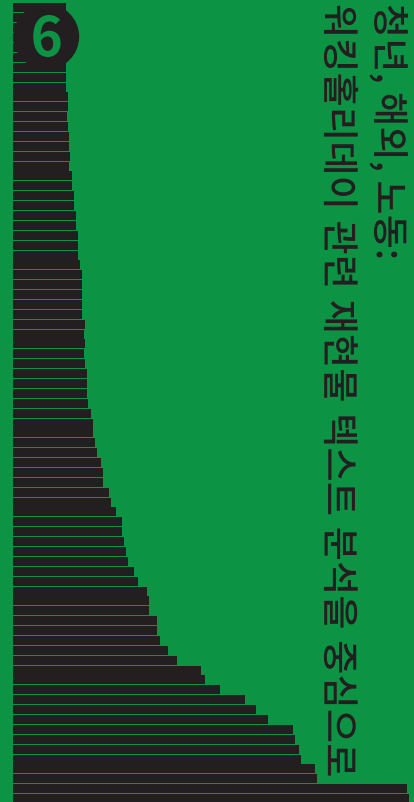
연합뉴스 2015년 3월 19일. “朴대통령 "한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해달라”

매일노동신문. 2015년 9월 21일. “박근혜 정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유명무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공모연구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6

청년, 해외, 노동: 워킹홀리데이 관련 재현물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우승현 황해정



## 목차

1. 서론	215
1-1. 들어가며	
1-2. 연구목적	
1-3. 연구방법론	
1-3-1. 정부문헌 연구	
1-3-2. 청년-재현물 연구	
1-3-3. 언어 네트워크 분석	
2. 워킹홀리데이와 한국 사회	219
2-1. 제도의 형성과 발전	
2-1-1. 워킹홀리데이 개요	
2-1-2. 해외 경험과 워킹홀리데이의 활성화	
2-1-3. 헬조선과 탈조선	
2-2. 워킹홀리데이 제도 분석	
2-2-1. '사건'의 등장과 위기	
2-2-2. '글로벌 인재' vs '글로벌 노예'	
2-2-3. 해외 경험의 한 회로로서 워킹홀리데이	
3. 워킹홀리데이 경험 분석	233
3-1. 재현물 수집	
3-2. 블로그 분석 결과	
3-2-1. 입국~1개월	
3-2-2. 2~3개월	
3-2-3. 4~6개월	
3-2-4. 7~12개월	
3-3. 수기집 분석: 클러스터 분석	
3-3-1. 클러스터1: 생각, 사람, 노력, 자신(self/proud)	
3-3-2. 클러스터2: 세계, 경험, 우리, 돈, 여행	
3-3-3. 클러스터3: 나눔, 순간, 여유	
4. 결론을 대신하여	262
참고 문헌	263

그림과 표 목록

- [그림 1] 해외 경험 관련 키워드 검색 빈도(google)
- [그림 2] 해외 경험 관련 키워드 검색 빈도(NAVER)
- [그림 3] 체류지역의 안전 상태
- [그림 4] 근무지의 안전 상태
- [그림 5] 부당 노동 경험과 내용
- [그림 6] 국가별 블로그 포스팅 수치
- [그림 7] 기간별 블로그 포스팅 수치
- [그림 8] 수기집 단어 빈도 히스토그램
- [그림 9] 수기집 단어 네트워크 분석
- [그림 10] 수기집 단어 클러스터링 텐드로그램

- [표 1]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현황
- [표 2] 국가별 비자 발급 요건
- [표 3] 수기 분석 대상 글 목록

1. 서론

1-1. 들어가며

지난 2015년 11월 2일 MBC다큐스페셜에서 방영한 '행복찾아 3만리'는 그야말로 '행복'을 찾아 외국땅으로 떠나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싱가포르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단기간에 취업을 준비하여 노동 이주를 하고자 하는 청년, 자신이 가진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민을 떠난 청년, 혹은 앞으로 이민을 떠나기 위해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청년,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비스직 노동을 하지만 충분히 저축을 할 수 있는 삶을 해외에서 꾸려나가고 있는 청년 등이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다.

이들이 해외로 떠나는,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꽤나 구체적인 것 같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주어지는 임금과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보았을 때 지속가능한 삶이 불가능하다는게 그 골자이다. 취업을 하더라도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게 되고, 그에 비해 휴가는 너무나 적은 상황부터 비정규직으로 임시적인 채용과 구직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이들에게 한국에 머무르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요식업계 기반의 서비스 노동이나 용접과 같이 특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층부 노동은 마치 가장 열악한 종류의 노동으로 보이지만, 해외에서 이를 기반으로 터전을 잡는다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취미와 여가가 가능한,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저축이 가능하여 지속가능한 삶이 바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다 (MBC, 2015).

해외로의 이주가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 해외로 향하는 청년들이 등장하는 양상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굳이 수치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부쩍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그들의 삶을 해외에서 꾸려나가고자 하는 청년 혹은 해외에서 꾸릴 수 밖에 없는 청년들 또한 생겨나고 있다. 이 양상은 국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외 취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 유학 및 이주 등 해외로의 이동(mobility)에 대한 산업의 확장과 함께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때 위에 언급한 다큐멘터리에도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워킹홀리데이(Workingholiday)'는 다시 돌이켜볼 가치가 있다<sup>1)</sup>.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주로 만 19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로 1년의 한정된 기간동안 특정 국가에서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노동(work)와 여가(holiday)를 할 수 있는 비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워킹홀리데이는 해외에서의 합법적인 노동을 해 볼 수 있는 창구가 되며, 장기 이주, 영구 정주를 고려하는 청년들이 일종의 시험이자 관문으로 활용하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흔히 '젊은이들의 도전'과 같은 수사가 덧붙여지는 워킹홀리데이는 청년이기 때문에 무모할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며, 취업을 위한 스펙이나 유사-어학연수로

1) 이 다큐멘터리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해외 이주를 시작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워킹홀리데이가 한국 정부와 다른 국가 사이에 협정된 비자 협상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라는 측면 또한 중요하다. 제도는 각 정부의 특정한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한국 청년들의 글로벌 이동의 풍광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지형에서 이루어지는 복잡다단한 자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이 되기도 한다.

국내에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한다. 언론과 관련 산업에서 워킹홀리데이는 한국 사회에서 스펙을 쌓는 모습으로 대표되는 청년상을 경유하여 글로벌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된다. 혹은 현지에서 벌어지는 사고를 선정적으로 보여주며 사건화한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도 워킹홀리데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헬조선'과 '탈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이 생기는 것처럼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워킹홀리데이는 해외, 청년, 노동이라는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매개가 되며, 그 역동을 훑쳐볼 수 있는 한 사례이다. 이 연구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한국 청년이 글로벌 영역에서 맞닥들이는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의 형성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청년들의 경험을 비교하는 작업은 한국과 해외를 넘나들며 형성되는 청년들의 특정한 위치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1-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추적하며 국가 간 협약으로서 이 제도가 어떻게 형성, 활성화되었는지 그 양상을 밝히고, 둘째,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형성과 그 실제 이용 양상의 간극을 밝히는 데에 있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 개인의 선택을 통한 경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추동하는 국가적 정책과 제도의 영향, 나아가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영향 아래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주도로 형성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제도가 형성되었는지 보다 폭 넓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간 협약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글로벌 이동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도와 활성화 되는 과정을 이끈 사회문화적 양상을 돌아봄으로써 워킹홀리데이의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청년의 해외 이동이 함의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창구로는 언론에서 이루어지는 단발적인 기사들, 외교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 등이 한 축에 있고, 사적 경험이 축적된 개인 블로그 및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른 한 축을 차지한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성공 사례'는 다양하게 재현되고 출판되지만, 위기와 불안, 권리의 부재 등이 드러나는 사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워진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의 사례뿐 아니라 후자의 사례에 주목하여 실제 해외 현지에서 벌어지는 청년들의 경험의 다양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청년과 해외, 노동이 글로벌 영역에서 개인적 경험을 어떻게 아우르며 관계하는지 밝히며, 둘째, 한국의 청년 연구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으로서 해외 경험에 대한 초기 연구를 제시하는데에 있다.

### 1-3. 연구방법론

#### 1-3-1. 정부문헌 연구

이 연구에서 직접 분석한 문헌으로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정부 자료가 있다. 이 정부 자료에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의 개념과 함께 이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을 어떻게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끌어들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반면에 보다 협약의 세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격 등을 보여준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글로벌 이동의 통로로서 워킹홀리데이의 위치를 훑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제도를 사용하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의 내용을 돌이켜 볼 수 있다. 나아가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현지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위치를 취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1-3-2. 청년-재현물 연구

이 연구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연구의 초기 작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재현물을 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재현물은 특정한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발화된 경험을 의미하며, 개인 블로그에 출판된 포스트,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수기를 비롯하여 언론에서 다룬 보도와 기사, 다큐멘터리 등을 아우른다.

재현물은 발화자의 맥락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맥락을 함께 쫓는 것을 시도하여, 발화자의 서사를 추적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외교부는 2010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수기(手記)를 받아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를 수집하여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해외 경험을 마친 청년들의 사후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워킹홀리데이 과정 중에 있는 청년들의 발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 블로그의 포스트를 분석하였다. 일정한 주기로 포스트를 올리며, 귀국을 한 시점에 있는 블로그를 찾았으며, 이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전

과정에서의 경험을 엿보고자 하였다.

### 1-3-3. 언어 네트워크 분석

재현물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텍스트 분석을 선택하였다. 텍스트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구성 요소(행위자, 개념 등)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분석 대상을 노드(node, vertex, 점)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링크(link, 연결)로 표현한다. 분석 대상은 사람이나 조직, 언어(개념, 단어) 등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에 속한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전환하고, 이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수학적 조작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한 청년 스스로가 그 경험을 재의미화 하는 재현물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현물은 주로 언어로 기술되는데,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어떠한 현상이나 지식이나 이해를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특정 현상이나 주제와 관련된 언어(메시지,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현상이나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 관련 개념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홍진 외, 2011).

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오픈 소스 통계 프로그램인 R (3.2.3 버전)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KoNLP와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패키지인 tm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를 시각화 하기 위해서 wordcloud, ggplot2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 2. 워킹홀리데이와 한국 사회

### 2-1. 제도의 형성과 발전

#### 2-1-1. 워킹홀리데이 개요

한국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는 워킹홀리데이를 "체결 국가 및 지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2016)로 정의한다. 이는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위한 청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이다. 일시적인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비자나 영구적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을 위한 비자와 달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 (주로) 만 18~30세라는 특정 나이대에게만 발급된다는 점 2) 그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sup>2)</sup> 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각 국가는 개별적인 신청 기간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을 거쳐 한국 청년은 해외 각국으로 떠난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995년이였다 (김석민, 2009). 이때 호주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과 협약을 맺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부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협약을 맺기 시작하여, 프랑스, 독일(2009년), 아일랜드(2010년),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2011년), 체코, 오스트리아(2012년), 헝가리(2013년),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2014년)에 한국 청년들이 파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스라엘, 벨기에, 칠레와의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있다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2016).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청년의 숫자는 2009년도에 그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약 40,000명에서 50,000명의 청년이 매해 해외로 나갔다. 전체 숫자가 주춤하는 대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교류국이 증가하면서 더욱 다양한 국가로 한국 청년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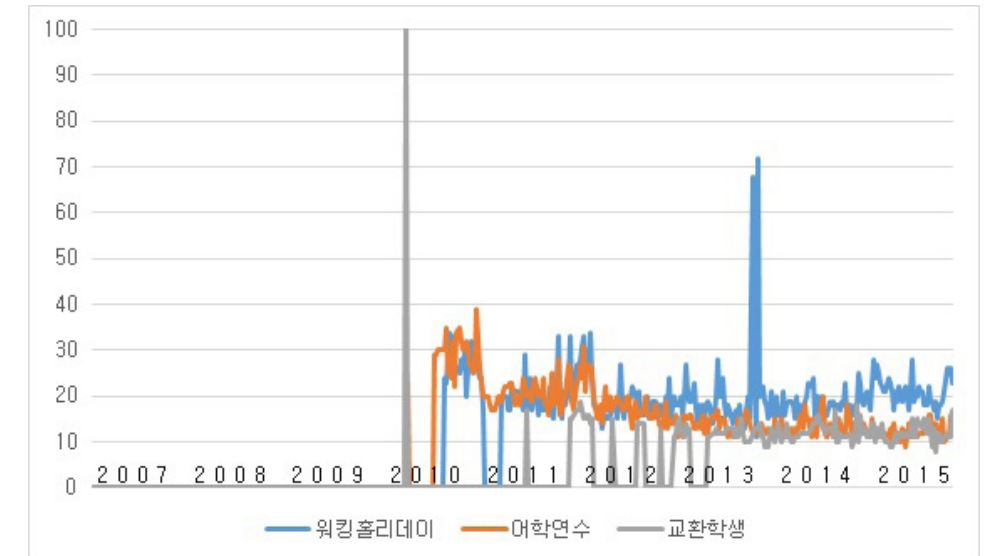
2) 일부 국가는 6개월로 더 짧은 기간을 보장한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2년차 비자를 발급받아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하여 이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에 있어서 예상되는 이주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표 1]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현황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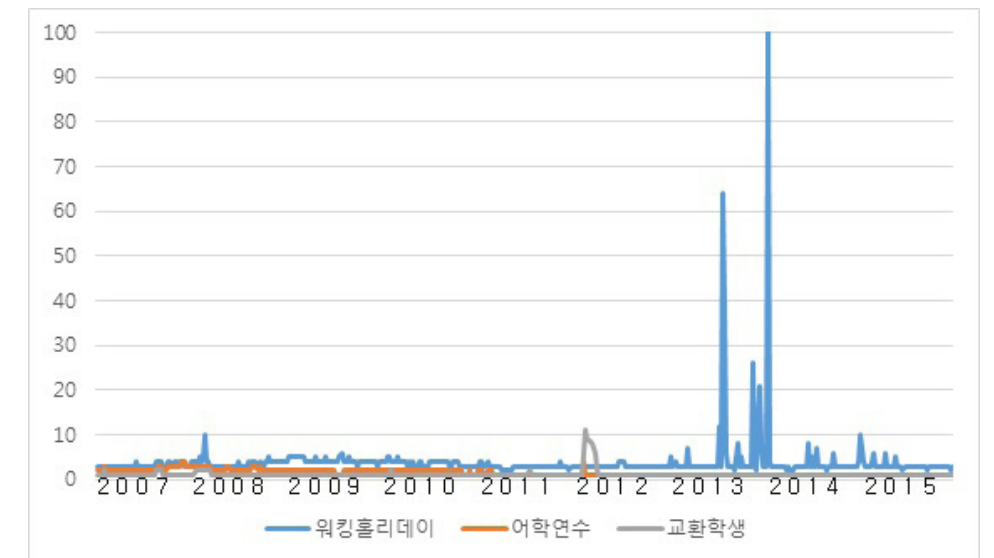
합계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오스트리아	영국	체코	대만	홍콩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년도
21,103	-	-	-	-	-	-	-	-	-	-	-	-	-	-	1,800	797	800	17,706	2005
29,478	-	-	-	-	-	-	-	-	-	-	-	-	-	-	3,600	1,071	800	24,007	2006
35,012	-	-	-	-	-	-	-	-	-	-	-	-	-	-	3,600	2,050	800	28,562	2007
40,146	-	-	-	-	-	-	-	-	-	-	-	-	-	-	3,600	1,901	2,010	32,635	2008
52,968	-	-	-	-	-	-	-	-	-	-	-	-	188	154	7,200	1,901	4,020	39,505	2009
49,137	-	-	-	-	-	-	-	-	-	-	-	440	582	185	7,200	1,800	4,100	34,870	2010
44,278	-	-	-	-	-	-	-	152	62	36	38	359	839	152	6,319	1,881	3,913	30,527	2011
48,496	-	-	-	-	-	386	2	214	127	68	44	400	1,084	205	5,856	1,803	4,069	34,234	2012
46,757	-	-	-	-	4	965	5	216	114	60	42	400	1,074	284	5,102	1,805	3,373	33,284	2013
37,368	1	96	96	12	43	959	21	367	500	79	46	400	1,510	335	3,254	1,803	3,751	24,146	2014

2-1-2. 해외 경험과 워킹홀리데이의 활성화

[그림 1]  
해외 경험 관련  
키워드 검색 빈도  
3) (google)



[그림 2]  
해외 경험 관련  
키워드 검색 빈도  
4) (NAVER)



위의 두 그래프는 각각 검색 사이트 구글과 국내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워킹홀리데이' 혹은 그 준말인 '워홀'이라는 키워드가 최대 검색된 양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워킹홀리데이에

3) 키워드 검색은 구글 트렌드의 도구(<http://www.google.co.kr/trends/>)를 사용하였다.

4) 키워드 검색은 네이버 트렌드의 도구(<http://trend.naver.com>)를 사용하였다.

대한 키워드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급증하여 그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이 급증한 시기와 일맥 상통하기도 한다. 한국의 20대 청년이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한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무를 수 있는 수단인 어학 연수 혹은 교환 학생과 그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해본다면, 다양한 해외 경험 중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오고 있다는 점을 더욱 뚜렷이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청년의 수가 일정 정도로 늘어가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위치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이때의 청년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청소년기부터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영향 아래 자라왔다. 신자유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 경쟁적으로 살아올 것을 요청 받았으며,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서동진, 2009).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서 청년을 호명한 세대의 이름만 해도 20여 개에 달하며(김선기, 2014), 언론 이외에 유통된 세대에 대한 명칭을 포함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청년 세대에 대한 담론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들 세대론은 지금 청년이 보이는 행동 양태를 각자의 언어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대 담론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끌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우석훈과 박권일의 '88만원 세대'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부재한 사회 안전망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박권일, 우석훈 2007), 이후 한 동안 이어진 '힐링'에 대한 열풍은 신자유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 무한 경쟁의 궤도 위에서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보고 위로 하고자 하였다(김난도, 2010).

청년 세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때로는 비판의, 때로는 위로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스펙'<sup>5)</sup>(spec)을 쌓는데 과열된 모습으로 상징된다. 스펙은 자기 계발을 통해 개인에게 '축적'된다고 상상되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기반이 된다. 애초에 어떠한 기계의 성능을 일컫던 단어가 일상의 영역에서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테면 취직을 위한 '5대 스펙'과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용어로 자리잡았다. '5대 스펙'은 학교(학벌), 학점, 토익 점수, 어학 연수, 자격증을 일컫는다(정남구, 2014). 필수적인 스펙에 어학 연수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곧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해외 경험을 당연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아가 어학 연수 뿐 아니라 해외 봉사 활동이나(조문영, 2013) 수련 여행(이민영, 2012), 중장기 도보 여행(민슬기, 2011)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해외 경험이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워킹홀리데이 또한 해외 경험이 가능한 한 창구로서, 그리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경험으로서 어학 연수 일변도에

5) 스펙은 '사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specification'의 준말이다.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역으로 그 관심이 확장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계획'과 2013년 박근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확대'에서 보여주듯이 적극적으로 청년의 해외 경험을 권유, 양성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2013). 나아가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의 주요한 실천 방안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꼽고 있으며(영사서비스과, 2011), 이 제도를 "우리(한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통로" (영사서비스과, 워킹홀리데이, 2011)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외교부의 정책홍보웹툰은 한국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어떻게 인식하여 홍보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 웹툰에서 워킹홀리데이는 금전적인 부담 없이 해외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 추후 구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으로 묘사되었다. 그 외에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 리플렛, 팜플렛, 포스터 등에서도 워킹홀리데이를 '여행'과 '어학', '취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로 홍보하였다.

코프만 등 (Eleonore Kofman, 2000: 32; 김현미, 2010; 우승현, 2015)은 이주의 과정에 있어서 구조와 개별 행위자의 관계에 주목하며, 이주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이주 체제와 그를 구성하는 이주 기관, 그리고 이주를 선택하는 개인 이주자의 세 가지 층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참고해보면 워킹홀리데이는 한국 청년들의 개별적인 필요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국가적 맥락,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산업까지 결합되어 형성되었으며 활성화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는 이들 영역에 걸쳐 하나의 이주 통로로 자리매김되었다.

### 2-1-3. 헬조선과 탈조선

"요즘 토익 만점은 뭐, '나 눈 두개 달렸고' 하는 것과 같지." 겸손도 아니었고, 농담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을 찡 울렸다. 내가 한국을 떠나기 한 달 전의 일이었다. 토익 만점을 받은 친구는 취직에 성공했고, 소나타 신형을 뽑았다. 주말이면 여자를 태우고 가평 펜션으로 놀러 갔다. 나는 주말에 무엇을 했던가. 구립도서관에서 토익 실전문제집을 풀었다. 직장, 여자, 소나타 신형. 내겐 그런 달콤한 것들이 없었다. 토익을 590점 맞는 한 앞으로는 없을 것이었다."

- 심재천, 나의 토익 만점 수기 18p

"왜 한국을 떠났느냐.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 지. 세 마디로

줄이면 여기서서 못 살겠어서. 무턱대고 욕하진 말아 줘. 내가 태어난 나라라도 싫어할 수는 있는 거잖아."(한국이 싫어서 10p)  
 "나더러 왜 조국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던데, 조국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거든. 솔직히 나라는 존재에 무관심했잖아? 나도 법 지키고 교육받고 세금 내고 할 건 다 했어."  
 -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170p

지난 몇 년간 출간된 도서 중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책들로 심재천의 "나의 토익 만점 수기" (심재천, 2012)와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 2015)가 있다. 위 글에서 볼 수 있는 호주로 떠나는 두 청년의 사례는 어쩌서 그들이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지 내면의 흐름의 추적한다. "나의 토익 만점 수기"에서 주인공은 토익 만점을 '눈 두개'에 비유한다. 여기서 눈 두개는 흔히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외적 요소를 상징한다. 곧 '토익 만점' 또한 이 사회에서 '정상'임을 인증받기 위한 지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59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는 사회 내에서 적절하지 못한 자가 된다. "한국이 싫어서"의 계나는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이 싫고,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무 교육을 마치고 세금을 내며 법을 지켰지만, '조국'은 자신에게 무관심했다고 한다. 국경과 태생의 의미에서 한 나라의 시민임이 분명하지만, 계나는 결코 '조국'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행하기만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한국은 결코 장기적인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최근에 와서 등장한 단어로 '탈(脫)조선'이 있다. 탈조선의 흐름은 1990년대 이전까지 '선진'국가로 생존하러 떠났던 이민,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소위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해외 경험과 구분되며, 한국을 '탈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강정석, 2015). 워킹홀리데이는 그 비자의 특성상 일시적인 탈출만을 보장한다. 그렇지만, 삶의 지속 가능성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의 일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직업 이주 및 이민을 짧게나마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탈한국의 양상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는 탈한국의 초창기 통로(gateway)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스펙의 일환으로 해외 경험이 당연시되어가면서,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해외 경험을 할 때, 해외 경험은 더 이상 유효한 스펙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1990년대 후반의 어학 연수는 남들이 하지 않은 차별화된 경험으로 취업 시장 등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사회문화적 자본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예컨대 영어 실력 혹은 영어 성적으로 환산되는 구체적인 수치로 말이다. 그렇지만 이미 청년의 해외 경험이 당연시되는 순간에 나아가 그들의 스펙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이는 사회문화적 자원으로 손쉽게 전환되지 못한다 (우승현, 2015: 36).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것은 스펙으로 해외 경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를 잡아 사는 걸 전제하지 않는다.

"그나마 당당하게 집을 나갈 수 있는 곳은 부모가 원하는 직장을 얻겠다는 조건으로 '고시' 공부를 하러 고시원에 가는 것일 것이다. 사법고시만이 아니라 교사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명분으로 아주 많은 청년들이 '고시원'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다.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고시에 통과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애초부터 고시 공부를 할 생각은 없이 잠시나마 숨 쉴 공간을 찾아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집을 떠나 고시원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 조혜정, 2010: 96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을 떠날 수 있는 훌륭한 핑계거리가 된다. 위의 글에 사법고시를 비롯한 교수 자격증, 공무원 시험의 준비는 곧, 해외 경험을 포함한 스펙 쌓기로 등치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육아에 이어지는 생애 주기를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이 생애 주기의 수행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민우, 이나영 2011: 132). 역설적이게도 자격증 및 시험 준비 과정을 비롯한 스펙 쌓기를 위한 해외 경험 또한 생애 주기의 '취업' 과정으로 설명된다면 생애주기를 위한 훌륭한 명분이 된다. 이들이 고시에 합격할 확률이 낮다는 걸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스펙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에서 사람으로 인정 받는 것은 곧 한 사회 내에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현경, 2015: 57). 이를 경유해 분석해보자면, 한국을 떠나는 청년들이 목격되는, '탈한국'이 횡행하는 상황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지금의 '탈한국'은 행복을 찾아, 외국을 향해 떠나는 것 보다는 자리가 없는 한국을 '떠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2. 워킹홀리데이 제도 분석

2-2-1. '사건'의 등장과 위기

한국 정부는 최근에 들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과정에서 한국 청년이 직면하는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매년 실시해온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2014년 기타 항목에서 "워홀 기간 중 어떤 문제를 경험했나"는 한 질문이 2015년 안전 항목으로 분리되어, 1) 안전 정보 준비, 2) 안전 정보 접근 매체 3) 체류 지역의 안전 상태, 4) 근무지의 안전 상태 5) 안전 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6) 워홀 기간 중 안전 문제 경험 여부, 6) 문제 경험시 대처 방안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영사서비스과, 2014; 2015). 더불어 역시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에서도 2013년부터 '안전정보' 메뉴를 추가하여 실제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2016). 이들 정황은 그만큼 워킹홀리데이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위기가 등장하였고, 그것이 가시화된 문제가 되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의 실태 조사에서는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경험, 대처 일반에 대한 가부 여부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에서 보여주는 피해사례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단발적인 '사고' 차원으로 공유하며, '수칙'이나 '주의사항'을 통해 개별적으로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인 중 일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컨비자를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호주 당국은 호주 당국은 세컨드 비자 심사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비자를 거절당하는 선량한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를 통한 허위서류로 세컨비자를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세컨드 비자 발급이 거부 당한 사람은 향후 모든 비자를 3년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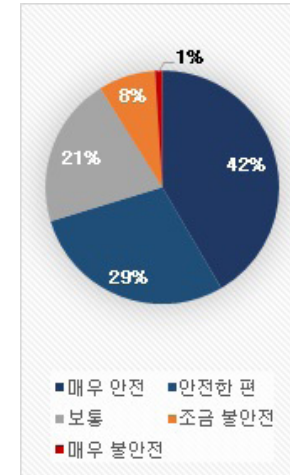
- 브로커를 통한 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불법 취득 조심(2015.7.29)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2016)

위의 사례는 호주에서 비자 연장을 하여 세컨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청년 중, 그를 위한 요건(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할 것)을 위한 서류 발급 과정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의 게시글이다. 물론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불법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주의'를 당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위의 사례 처럼 비자와 같이 해외 체류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사건에서부터, 집이나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희롱과 성폭력, 단순하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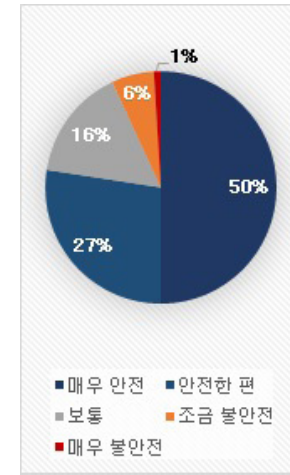
워킹홀리데이 중 여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소매치기 사고에 까지 모두 동일하다.

김석민은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사례에서 안전 관련 사고와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해 실상 파악과 이해가 미진하였음을 인정하며, 주거 및 고용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석민, 2009). 그렇지만, 참가자 교육을 통한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와 같은 사적 차원에 집중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해외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위기의 해결과 대처는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위기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비정규직·노동현안 TFT, 2015)의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는 노동 이슈에 입각하여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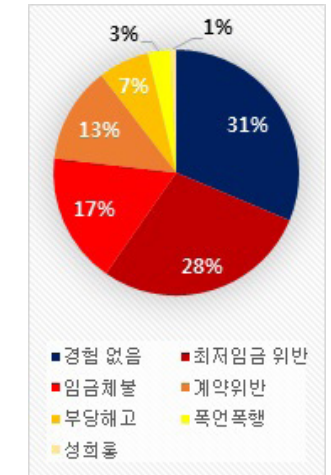
[그림 3] 체류지역의 안전 상태 (영사 서비스과, 2015)



[그림 4] 근무지의 안전 상태 (영사 서비스과, 2015)



[그림 5] 부당 노동 경험과 내용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비정규직·노동현안 TFT, 2015)



여기에서는 '안전'을 키워드로한 외교부의 조사에서 체류지역의 안전상태와 근무지에서의 안전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71%(매우 안전 42%, 안전한 편 29%), 79%(매우 안전 51%, 안전한 편 28%)로 대다수를 차지한 데에 반해, '부당 노동'을 경험한 참가자가 58%로 집계되었다. 이는 사건의 유무를 넘어서 실제로 노동 환경의 차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계약 위반과 같은 노동 착취의 요소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비록 노동 이슈에 한정되었지만, 이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접하는 해외 경험 전반에서 벌어지는 위기의 양상을 '사건' 위주에서 나아가 이들이 점유하는 사회 문화적 위치와 그에 따라 맞닥뜨리는 착취 문제까지 확장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현지에서 외국인으로서, (주로 기층부 노동을

담당하는) 단순직 노동자로서 사회 주변부에 위치한다. 이 위치는 일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위기를 맞닥들일 수 밖에 없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홀리데이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위주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에게 주어진 기회', '일 경험과 여행, 해외 생활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기회'와 같은 서술은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정부와 관련 산업의 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위기를 양산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회적 위치는 별로 보이지 않으며, 단발적인 사고만이 종종 목격될 뿐이다.

위기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워킹홀리데이의 홍보 문구 뒤에 숨어있는 제도의 면면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한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간 워킹홀리데이 협약 내용을 통해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2-2. '글로벌 인재' vs '글로벌 노예'

대표적인 청년의 해외 경험 통로인 어학 연수가 이주 기간 중의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해 목돈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교환 학생이 일정한 학력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해, 워킹홀리데이는 보다 폭넓은 청년으로 하여금 해외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워킹홀리데이의 정의에서도 청년 범주를 만 18세에서 30세로 제한하여 나이만을 구체적인 제약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선발' 과정을 두고, 한정된 인원수 내에서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표 2]  
국가별 비자 발급  
요건

	인원 제한	신청서 /신청비	비자발급 비용	통장잔고	의료보험 (사보험)	범죄경력 /신원	신체검사	기타 서류
호주	x	AU\$440 (신용카드)		AU\$5,000	가입 권유	-	지정병원 에서 필요	
캐나다	4,000	CAN\$150	CAN\$100	CAN\$2,500	체류기간에 대해 필요	증명서 필요	지정병원 에서 필요	여권 신원면의 사본, 이 력서
뉴질 랜드	3,000	NZ\$165 (신용카드)		NZ\$4,200 /항공권	체류기간에 대해 필요	증명서 필요 (총 24개월 이 상 체류할 경 우)	지정병원 에서 필요	출입국 사실 증명 (뉴질 랜드로 입국한 적이 있 는 경우)
일본	10,000	없음		귀국 비행기 및 초 기자금 약 250만원 (3개월간 입출금내 역서)	-	-	-	이력서, 진술서, 조사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 본, 재학/졸업증명서, 여 권의 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아일 랜드	400	KW 84,000 (우편환)	EU400 (현지)	EU1,500	체류기간에 대해 필요	증명서 필요	-	사진, 여권의 사본, 이력 서, 자기소개서, 학위/학 생/시험 증명서

위 표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 중 5개국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 받는데 소요되는 과정과 신청서 이외에 필요한 서류,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를 통해 나이 범주 이외에 어떠한 요소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아무리 다른 종류의 해외 경험에 비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비용의 소요가 전무하지 않다. 비자 신청과 발급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은 일본을 제외하고 적게는 약 12만 8천원(뉴질랜드)에서 약 61만 3천원(아일랜드)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더라도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이를 결제하도록 한다. 이는 곧 본인 명의의 혹은 대리 결제를 해줄 수 있을만큼 가까운 지인의 신용카드를 가지는 것 또한 비자 발급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여러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게는 약 198만원(아일랜드)에서 약 418만원(호주) 정도의 통장 잔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호주를 제외한 경우에는 잔고 증명서를 통한 증빙 과정이 필요하다. 범죄 경력 증명서와 지정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검사 내역 또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여권 전체에 대한 사본이나 이력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진술서, 여행 계획서 등이 종종 요구된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맞이하는 수용국은 익명의 다수 청년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 경력이 있어서 차후에 자기 사회에 해악을 가할 수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의도치 않은 사회적 지출이 야기되거나, 과도하게 노동 시장에 편입되고자 하는 청년은 워킹홀리데이 신청 과정에 있어서 걸러져야 할 후보군이다.

기욤 르 블랑은 "체류증과 노동 증명서의 발급부터 국경으로 추방하라는 결정까지", "안에 속한 자와 밖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국경"을 표시한다고 했다 (블랑, 2014). 이와 같은 '표시'는 결국 외국인이라고 '지시'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 사회 내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조건이 된다. 다만 이 표시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따라서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그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기욤 르 블랑의 표현을 빌리자면) "긍정적인 이방성으로서 고유의 이방성"을 취득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시에 휘둘리는 과정에 가깝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고, 현지에서 번 돈으로 여행까지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서류 등을 통해 적절한 후보군을 선택하는 과정은 결코 이 통로가 모든 청년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 나아가 유입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종류의 인구를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세부적인 제도 협약 내용은 이를 다시 한 번 뒷받침한다.

Description: The Working Holiday category is designed for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intend to travel in Canada and who wish to find temporary paid employment to help pay for their trip (up to 12 months).

- 캐나다 (Canada, 2016)

If you hold a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or Work and Holiday (subclass 462) visa, the main purpose of your visit must be for an extended holiday.

- 호주 (Australian Government, 2016)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

- 일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2016)

아일랜드 국민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일랜드에 상당기간 동안 주로 관광을 위하여 입국하고,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 (...)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방문기간 동안 영구 고용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방문기간 중 훈련 또는 학업 과정, 특히 한국어 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할 수 있다.

- 아일랜드 (아일랜드정부, 대한민국정부, 2009)

먼저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로의 여행을 목적을 가지고, 그 여행을 위한 임시적 취업을 하려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하 호주와 일본의 경우에도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이 관광과 여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취업 활동은 임시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양해각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영구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취업을 부분제(part-time) 혹은 단순 작업(casual work)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의 모든 국가들은 자녀와 파트너를 비롯한 어떤 부양 가족도 함께 이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협약 곳곳에 담고있다<sup>6)</sup>.

한 고용인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 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6) 예를 들어 호주(not be accompanied by dependent children during your stay), 뉴질랜드(not bring children with you).

규칙<sup>7)</sup>등에서 워킹홀리데이의 참가자가 잠재적인 영구적 이주자, 노동 이민자 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 임시적 노동자로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각국의 산업분야에서 노동 공급이 부족한 요소를 채우는 데에 동원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연간 세계 이주 전망 책자(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서 2015년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한 청년 이주 프로그램이 노동 이주를 위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노동 공급의 꽤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2015: 139). 호주에서 농업 분야 노동력 충원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활용하는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과수 생산 원에 분야의 노동 수급에서 워킹홀리데이에 의지해왔다 (휴고 외, 2013: 6~7).

이러한 의도는 장기 노동을 막기 위한 규칙들 아래의 예외 조항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호주에서 특정 고용인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1] 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예외적 상황에 대한 허가는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에 한정된다. 12세 미만의 아이들 돌보는 종류의 노동인 오페어(Au pair)와 특정 돌봄 노동과 북부지역의 노인, 장애인 돌봄 노동, 농업, 건설, 탄광, 관광 및 관련 서비스(hospitality) 산업 등이 그것들이다. 각 직업군은 세부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또한 우편 번호(post code)를 통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성인 한정된 기간에 대한 예외 조항에서 이어진다. 호주의 경우에는 1년간 거주를 연장 할 수 있는 '세컨 비자(second Working Holiday visa)'의 신청 요건으로 농업 및 축산업, 어업 및 양식업, 임업, 광산업과 건설업 분야의 노동을 특정 지역에서 3개월 이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2016). 뉴질랜드 또한 3개월간 원예 혹은 포도 재배 분야의 계절제 노동에 종사한 경우 3개월 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Newzealand, 2015).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1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 계절제 노동과 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노동 공급이 필요한 분야를 충당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분제나 단순 작업 노동에 취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영구적 정착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여 유입 인구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되,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 인구조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해외 국적을 가진 임시적 이주자는 부분적 시민(partial citizens)으로, 장기 거주민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권리나 고용에 대한 권리(employment benefits)를 보장 받지 못한다 (Carens, 2008; Bauböck, 2011). 나아가 글로벌 신자유주의에서

7) 호주의 경우 "You can do any kind of work over the course of your 12 month stay in Australia, however the conditions of your visa limit you to a maximum period of six months work with any one employer, unless you've been given permission by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to work longer."라 명시하고 있다.

이주는 결국 자본 축적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결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외치는 '문화 교류'와 같은 목적은 작은 허울에 불과하지 않게 된다. 청년들은 전세계를 떠돌며 농림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그리고 사회 기층부를 구성하는 서비스직 노동자의 위치를 점유한다. 임시적이기 때문에 유연할 수 있는 이들은 결국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부품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 2-2-3. 해외 경험의 한 회로로서 워킹홀리데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워킹홀리데이는 해외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지만, 결코 무작위의 모든 청년을 환영하지는 않는다.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한 여러 제반 사항들은 준비 기간을 거치도록 하며, 이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비용들 또한 만만치 않다. 제도적 측면에 천착한다면 워킹홀리데이는 결국 한국 사회에서 갈 곳 잃은 청년들이 또 다시 자본주의의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형상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해외에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계속 목격된다. 고스와 린퀴스트는 과거 이주 이론에서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 배출-흡입(push-pull) 요인에 의해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만으로 이주의 흐름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이주자의 경우에는 모험심이 이주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Goss, Lindquist, 1995).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더라도, 결국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착취의 구조이다. 신자유주의 체제하, 이주를 비롯한 이동에서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Castles, 2011). 일부 특정 계층에게 해외로의 이동은 국경을 마음껏 넘나드는 코스모폴리탄적 삶을 의미하지만, 다른 대다수에게는 체제 자체에 맞서는 과정을 포함한 위험을 끊임 없이 직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승현, 2015). 이렇게 분화되어가는 이동의 계층 사이에 워킹홀리데이 제도 또한 새로운 한 회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마이클 P. 스미스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이주의 논의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실제로 이동하는 행위자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0).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한국 청년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해외로 떠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된 청년들, 제도적으로 글로벌 영역에서의 착취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그럼에도 꾀꾀이 행복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한국을 떠나는 청년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들과 이들을 둘러싼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동을 경험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 다음장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재현물 데이터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워킹홀리데이 경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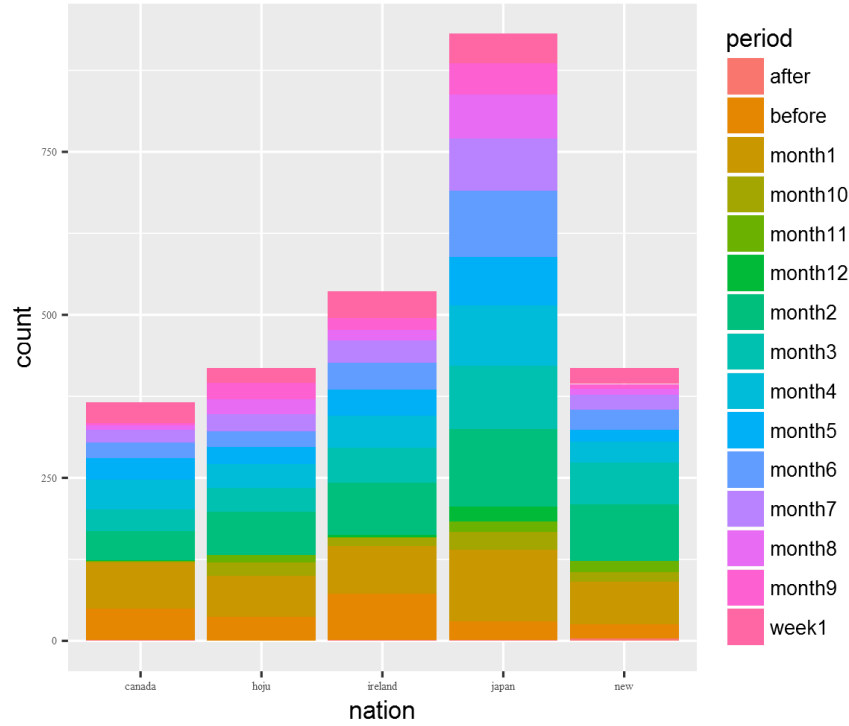
### 3-1. 재현물 수집

재현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하나는 블로그 포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에서 발행하는 수기집이다. 전자는 현지에서의 경험 중에 시시때때로 작성되는 재현물이며, 후자는 주로 워킹홀리데이 이후에 보다 전반적인 경험을 정리한 글이다. 이 두가지 재현물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벌어지는 경험의 양상을 순차적으로 추적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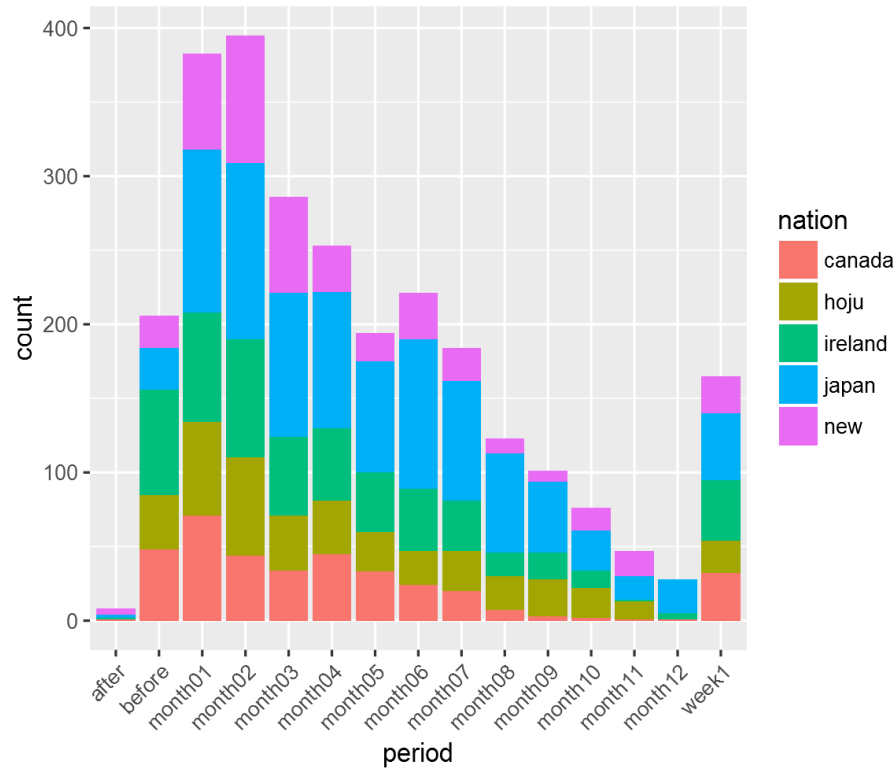
블로그 포스팅 분석에는 총 5개(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에 워킹홀리데이 중이거나 워킹홀리데이를 마친 사람들의 블로그를 선정하였다. 블로그 선정을 위하여 우선 국가 워킹홀리데이 상위 7개 국가 중 해당 국가 언어를 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없는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 후 한국의 포털 사이트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를 선정하여 '국가명 워킹홀리데이'로 블로그를 검색한 후 최근 3년(2013~2015년) 이내에 유학원 등 관련 산업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제외하고 상위에 있거나, 누적된 글이 50개 이상인 블로그를 각 국가별로 5개씩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블로그 중 16개는 워킹홀리데이 진행 중이었으며 9개는 워킹홀리데이를 마친 상태였다. 워킹홀리데이를 마친 9명 중 비자 기간 보다 빨리 귀국한 경우가 2명 있었다.

게시물은 게시 내용, 제목, 게시 기간과 함께 수집하였다. 블로그 글은 사진이나 이모티콘을 제외하고 글자만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2670건의 게시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국가별, 기간별 블로그 게시글 숫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게시글이 많았고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간 별 게시글 개수는 1개월차가 가장 많았는데, 1주차 게시글까지 합친다면 다른 기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게시물이 워홀 1개월차에 기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게시물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6]  
국가별 블로그  
포스팅 수치



[그림 7]  
기간별 블로그  
포스팅 수치



hoju = 호주, new = 뉴질랜드, japan=일본, ireland=아일랜드, canada=캐나다  
before = 워홀 전 준비, after = 워홀 후, month=개월, week1 = 워홀 첫주차

수기는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에서 진행하는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중 해당 부분 수상작으로 공개된 수기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블로그와 같이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2013년과 2014년에 진행된 공모전 수기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5개의 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  
수기 분석 대상  
글 목록

연도	국가	제목
2013	뉴질랜드	작은 나비의 날갯짓 in 뉴질랜드
	일본	몸은 바쁘게 마음은 여유롭게
	아일랜드	느림 대 여유로움: 나는 아일랜드에서 새로 태어났다.
	호주	Work, Act, and know yourself!
	독일	밋밋했던 내 삶의 가장 격정적이었던 사계절
	캐나다	넘어지면 어때.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영국	바람 부는 청춘 언덕, 젊은 날의 연가. 나의 런던 이야기
	호주	호주 워킹홀리데이, 나만의 행복을 찾다
	호주	나의 과란만장 워홀이야기
	일본	몸은 바쁘게, 마음은 여유롭게
2014	아일랜드	What is the craic, Ireland?
	캐나다	캐나다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라 손짓했다.
	아일랜드	유럽의 얼굴에서 길을 찾다.
	대만	청춘: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
	프랑스	파란만장 파리지엔느 도전기
	호주	세계로 향하는 문
	호주	스물셋의 성장 소설, 워킹홀리데이 이야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서울 이제 한 발짝
	영국	Keep passionate and carry on enjoying

텍스트 분석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tm 패키지와 KoNLP를 이용하였다. 대략적인 분석 과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쳤다.  
1) 우선 수집된 블로그 포스트를 R에서 불러와 정제하였다. gsub 함수를 이용하여 특수 문자, 이모티콘, html 인코딩으로 발생하는 특수 문자 등을 삭제하였다.

2) KoNLP의 extractNoun 기능을 이용하여 명사만 추출하였다<sup>8)</sup>.

이 과정에서 사전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워킹홀리데이와 관련된 명사들을 추가적으로 mergeUserDic 명령어로 사전에 입력하였다. 추가된 단어는 다음과 같다.

우프	검트	어	타라	잡	장			
리		카케모치	헬스케어	시급제	맛집	Jlpt		
시티	하나	PPSN	번다	IRB	일자리	다블	TFN	아이
비		버그	SIN	레지	데이	람		엘츠
멤봉	스텐	야스미		오프	CV	알바	오펜	
소프트	캔모	GNIB	텔스	능력제	한인	어	패킹	

extractNoun 기능은 주어진 문장의 형태소 품사를 판단하여 그 중 명사만 추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의 정확도는 입력되는 문장과 문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3) 추출된 명사를 tm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시 정제하고, TF/IDF 방식으로 문서 내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어를 추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한 개념을 노드로 나타내고 개념 간의 관계를 링크로 나타낸다. 각 노드와 링크는 숫자로 표현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tm 패키지는 corpus라는 말뭉치를 바탕으로 노드와 링크값을 계산한다. 2)에서 추출한 명사 뭉치를 corpus로 변환하고, 이 corpus를 TermDocumentMatrix 기능을 이용하여 개념 간 연관도 및 해당 개념의 중요도를 행렬로 계산, 도출한다.

### 3-2. 블로그 분석 결과

포스트 분석은 기간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기간을 나누어 진행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 포스트의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를 한꺼번에 모아 분석할 경우 워킹홀리데이 초기(해당 국가 입국~1달)에 작성된 포스트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성한 포스트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시간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경험이나 주제가 변화하는 양상이 존재한다면, 기간에 따라 등장하는 주요 주제어 역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갖고 포스트를 검토하여 입국 후 첫 한달, 3개월, 6개월, 12개월의 4구간으로 분류하였고, 분류한 기간에 따라 포스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라는 문서의 특성 상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html 요소 등으로 인해 수기집에 비하여 분석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주요 단어는 도출하였으나, 주요 단어와 관련된 연관어나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8) KoNLP 및 extractNoun에 대해서는 <https://github.com/haven-jeon/KoNLP/>를 참고

### 3-2-1. 입국~1개월

포스트 개수 : 548개,

추출 단어 개수 : 60180

주요 단어 : 홈스테이, 이력서, 인터뷰, GNIB

워킹홀리데이 입국 후 첫 한 달은 현지에서 일상을 만들어내는 정착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장에 머물 곳을 직관적인 과정에서, 앞으로의 일상 구축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나아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그 사회에 인정을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더불어 동네 지리를 익히거나 휴대 전화를 개통하는 과정,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소소한 과정이 모두 일상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면면이다.

<내가 살고 더블린 홈스테이 Dublin Homestay 그리고 일자리 care 센터>  
“아일랜드로 워홀 비자를 무사히 수령한 후 내가 가장 먼저 예약한 곳은 홈스테이. 사실 홈스테이, 호스텔, 단기방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호스텔이나 단기방 보다는 뭔가 친근감 있어 보이고 아일랜드의 사람사는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홈스테이를 예약 ㅎㅎ (...)”<sup>9)</sup>  
- 아일랜드

해당 국가에 입국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숙소이다. 초기 정착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호스텔, 백팩커, 홈스테이, 민박 등을 거쳐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 개중에 캐나다와 아일랜드, 뉴질랜드로 떠난 참가자들은 특히 홈스테이를 많이 언급하였다. 홈스테이는 호스텔이나 단기방과 같은 다른 정착 초기의 숙소에 비해 현지의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 호주와 일본에서는 셰어하우스의 주거 형태가 더 많이 등장하였다.

“(...) 셰어(하우스)를 구하고 잡(job: 일)을 구하면서 한번 가서 체험 해보려 한다. 그 후 집에서 ‘Seek’<sup>10)</sup>으로 일자리를 계속 지원했고 여러 셰어하우스, 한인오너, 외국인 셰어 등을 알아본 뒤 오늘 내일 총 4개의 인스펙션(inspection: 사전 답사) 약속을 잡았다. (...) 첫 인스펙션 장소 도착. 인스펙션한 방은 한 집안에 외국인 셰어 4인실, 한국인 셰어 4인실

9) 블로그 포스팅의 인용은 최대한 원문을 살리고자 노력하였으나, 텍스트로 표현이 불가능한 이모티콘이나 과도한 약어 및 비속어에 대해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해당 포스트의 제목을 함께 기입하는 경우 <괄호>에 넣었으며 포스트의 내용은 “”에 넣었다. 특정 업체나 학교 등의 이름은 삭제하거나 익명으로 표시하였다.

10) 호주의 구직 사이트이다. <http://www.seek.com.au>

이었다. 외국인 쉐어는 냄새도 좀 나고, 한국인 쉐어 방은 비교적 깨끗. 거실도 쉐어를 한 걸 보고 시드니의 닭장쉐어 임을 느꼈다. 아파트 한집에 총 10명이 사는 것 화장실도 하나 거실도 하나 주150불 집이 급하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

“쉐어하우스 입주 4일차입니다 일본도 춥기는 하지만 한국보다 따뜻한 것 같아유. 패딩 하나 입고 걸어 다니면 땀이 나네유 ㅎㅎ 드디어 고민 끝에 ‘JF house’ 오사카 외국인 쉐어하우스 입주 했습니다ㅎ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나라의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생활할수 있어 혼자서 생활 하는 것보다 덜 외롭고, 얘기도 하면서 여러 정보 교환도 하고 있어유. 특이한 점은 입주할 외국인은 심사가 필요없지만 일본인 같은 경우 심사를 보고 입주 허가를 준다고 합니다”

- 일본

호주에서는 쉐어하우스를 보러 다니는 것을 ‘인스펙션’이라고 지칭한다. 집을 정하기 전까지는 백패커<sup>11)</sup>(backpackers), 지내는 경우가 많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할 때 까지 인스펙션을 잡거나, 혹은 짧게 경유할 수 있을 때에는 백패커에서 머물다가 바로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일본 역시 호주와 유사하게 외국인이 거주 가능한 쉐어하우스에 머물다는 포스팅이 있었다.

홈스테이와 함께 중요도가 높은 단어로 ‘이력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 등장하였다. 주거지를 정하는 과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 또한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일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는 건 영어가 안되면 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캐나다에서 영어 제일 못하는 사람은 나인 것만 같고, 나만 쭈구리같고, 일 못 구해서 한국 돌아가는 최초의 사람이 내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드는 요즘이다. 자신감이 점점 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이번 주에는 스키 레스토랑에도 이력서를 몇 군데 돌렸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길 그저 바래본다. (...)"

- 캐나다

11) 백패커는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배낭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소 유형을 일컫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호스텔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튼 일자리 문제가 조금씩은 압박이 된다. 많은 인터뷰를 잡으면서 여유가 있었는데 안된 것도 있고 내가 놓친 것도 있고 내가 합격 하고 안 간 곳도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 인터뷰 스케줄이 1개도 없다. (...) 2일 뒤면 2주치 렌트비를 내야한다. 내가 정해놓은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일까 압박감이 오고 있다. 무조건 쉐어 렌트비 2주치를 낸 뒤 2주 내에 일을 구해야 한다. 일이 구해진 뒤 조금 더 다양한 하루를 채워야겠다. 지금은 일단 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야지. 긍정적으로 화이팅.”

- 호주

"정말 백만년 만에 포스팅 하는 것 같다. 어학원 졸업하고 일 찾고,, 집 찾고, 일 하고, 데이오프(day off: 휴일)나면 놀러 가고 하느라 바빴다. 한마디로 게을렀다고 얽으면 정확하다 (...) 매일 레주메(résumé: 이력서) 3시간 돌리고 저녁엔 놀고 ㅎㅎㅎㅎ 레주메는 많이 돌렸는데 연락온 곳이 하나 빼고 없다. 첫 인터뷰 본 데서 고용되어서 계속 일하는 중인데 그 인터뷰가 처음이자 마지막. 지금도 생각해보면 소름이다. 일 찾을 때 진짜 잔고 0이어서 밖에서 밥도 못먹었던. 어학원 졸업하고 운 좋게 열흘만에 일 찾아서 다행. 매일마다 팁을 현금으로 받아서 더 다행 ㅎㅎㅎ"

- 캐나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력서를 돌리고 거절 당하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느낀다. 특히 초기 정착금이 점차 줄어들면서 느끼는 압박감, 낯선 언어와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일을 구했을 때의 기쁨, 즐거운 감정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해당 국가에 외국인 거주자로 등록을 하는 일이다. 주요 단어 목록에서는 아일랜드의 외국인 거류증격인 GNIB(Garda Immigration National Bureau)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도착하면 1달 안에 꼭 해야 하는 바로 그것. 오늘은 GNIB 발급 포스팅이다. 사실 GNIB 발급 이야기는 포스팅 쓰면서 다시 상기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런 경험이었다. (...) 나는 길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번호표를 받고 안에서 기다리거나 다른 데를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민국)이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갔다.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다. GNIB 발급할 때는 총 3번의 기다림이 있다 첫 번째는 내 번호가 호출될 때까지의 시간 이 단계에서 카드 결제를 한다. 두 번째는 열 손가락 지문인식을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는 카드가 발급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첫 번째 단계를 위해 4시간을 기다리고 두 번째를 위해 3시간을 기다리고 세 번째를 위해 또 3시간을 기다렸다. 밖에서 기다린 시간까지 합하면 나는 GNIB를 위해 총 11시간을 기다린

셈ㅋㅋㅋㅋㅋㅋ 아 이날 정말 멘붕이었는데 아일랜드 와서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딱히 없었는데 이 날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여기에서 완전 초 슈퍼 외국인구나. 이 카드 없으면 나는 아일랜드에서 나가야 되지 이러면서 11시간을 기다렸다 ㅋㅋㅋㅋ 이 번호표 받을 때까지만 해도 11시간이나 기다리게 될 줄 몰랐는데 카드를 받으니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ㅋㅋ 집에 갈 때 되니 완전 깜깜한 밤이었다.”

- 아일랜드

캐나다의 SIN(Social Insurance Number), 호주의 TFN(Tax File Number)와 뉴질랜드의 IRD(Inland Revenue Department number) 그리고 일본의 도장을 가지고 지역 구청에 서류 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일랜드의 GNIB발급과 같이 현지에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이다. 아일랜드의 사례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캐나다 워홀 SIN 넘버 발급 및 은행계좌 개설>

“Social Insurance Number라고 외국인들 캐네디언들 모두가 가지고 work ID같은 걸로 신넘버(SIN)라고 부릅니다. 일 할 때만 필요한거라 주민등록증 같은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자신이 묵고 있는 곳의 Service Canada<sup>12)</sup> 를 찾아가서 하면되는데요.

“I'd like to apply to SIN.” 하면 매우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ㅋㅋ 저는 호스텔 바로 옆옆블럭이어가지고 완전 편했음ㅎㅎ 필요한건 여권 워크퍼밋증서 숙소 주소만 있으면됩니다ㅎㅎ 여차피가지고 갈게 그것 뿐일 테니까요. 이걸 빨리해버려야 일구하러 다닐 때 자신있게 SIN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오자마자 하세요ㅋㅋ저는 첫날 SIN 계좌계설 동네지리 파악 하면서 다녔어요(...)”

- 캐나다

<IRD 넘버 신청>

“뉴질랜드에서 IRD 넘버를 신청하려면 우체국과 AA(Automobile Association)라는 곳에 가면 된다. 시티에 AA로 가려 했는데 사람이 많다는 소리에 집 가는 길에 우체국으로 갔다.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있다. 여권, 여권 복사본,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복사본 비자

12) 캐나다에서 주민 대상 행정 서비스를 하는 부처 및 그 사무실을 일컫는 말

서류 여기까지만 있다면 된다. 난 전부 가져가니 직원이 잘해왔다고 이제 2주 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끝. 집으로 우편물이 온다(...)”

- 뉴질랜드

“오늘 구청가서 주소등록하고 도장 만들었습니다 ㅎㅎ 휴대폰 개통 하고 통장까지 만들려구 했는데 이놈에 일본 대형 통신사는 유심카드는 판매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한 휴대폰에 유심카드 넣으면 사용 안된다고 합니다. 요도바시에 이름없는 작은 회사 외국인 전용 유심카드 판매하고 있으니 내일 가봐야겠어요 ㅠㅠ 상당히 까다로운게 많네요 ㅠㅠㅠㅠ 우울해지는 금요일입니다 ㅠㅠ”

- 일본

주거지를 찾고 일을 구하는 과정과 같이 각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은 현지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많은 블로그에서 기존에 축적된 정보 바탕으로 직접 경험하며 이 과정의 내용과 절차를 공유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내용 뿐 아니라, 과정 중에 어려운 점과 보다 용이하게 행정적인 과정을 처리하는 요령 등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일종의 매뉴얼처럼 단일하지 않고 매우 부산스럽게 이루어진다. 집과 일을 구하고, 행정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 한편, 통신, 은행 등 필수적인 생활에의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고, 그 사이에 지리를 익히는 등의 적응까지 마쳐야 한다.

“(...)전철에서 내리고 갈아타려고 계단을 내려가야하는데 내려가는 계단마다 나오는곳이 전부 다릅니다 ㅋㅋㅋ 그걸 처음에 모르고 갈아탈때마다 처음 보는 곳이 나와서 계속 길을 해맸고 그때도 길을 잃어서 해맸습니다 ㅋㅋㅋㅋ (...) 그리고 ‘아키바’에서 매주마다 베틀시작을 열더군요 처음알았습니다 저는 베틀시장에서 티셔츠를 좀 샀습니다 뭐랄까 백화점 특별세일할때 아줌마들이 웃고르느기분으로 하나하나 뒤지면서 좋은 옷을 아무튼 싸게사서 기분 좋았습니다.”

- 일본

<D-8 더블린 일상>

“별써 아일랜드에 온지 8일째 시간 정말 빠르다 홈스테이도 적응되어가고 학원도 시작했고 집도 구했고 이제 은행이랑 비자만 해결하면 초기정착은 완료ㅋㅋ 일은 천천히 하기로 했으니까 원래 오늘 학원에서 스쿨레터받고 은행에 가려고 했는데 깜박하고 제출할 서류를 다쓰고 안줘서 ㅠ 내일 가야된다 ㅠ ㅠ (...)”

- 아일랜드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한다는 것은 현지인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GNIB를 발급받기 위해 무수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슈퍼 외국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현지에서 특정한 외국인의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실수를 반복하면서 대중교통 사용과 같이 지극히 일상적인 영역에서 본국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습관을 바꾸어나가는 현지에서의 적응이다.

3-2-2. 2~3개월  
포스트 개수 : 681개  
추출 단어 개수 : 59141  
주요 단어 : 홈스테이, 가격, 알바, 블로그, 포스팅

워킹홀리데이 1개월 차까지는 아무래도 정착 초기에 벌어지는 공통된 일들이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일상을 구성하는 과정과 다양한 감정이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2~3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초창기였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초기에 마련한 주거지에서 떠나는 경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기는 경제적 고민, 노동을 시작하면서 벌이는 다양한 일들이 나타났다.

“이사 하고 나서 주인 부부를 한 번도 못 봤다. 주인 부부는 2층에 살고 나는 1층에 살고 출입구도 따로 사용하기 때문. 홈스테이 할 때는 좋든 싫든 계속 마주쳤는데 뭔가 적응이 안 된다 ㅎ 집 바로 앞에 호수가 데 아직 못 갔다”  
- 캐나다

<홈스테이 아줌마 문자>  
“아침에 홈스테이 아줌마한테 “나 밖에 나갈게~” 라고 말했는데 똥씹은 표정으로 대꾸도 안하더니 저런 문자-“You can leave anytime now... I will refund your money...”-를 보내옴. 홈스테이는 12월 8일에 나갈거고 혹시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면 11월 31일에 나간다고 통보했는데 문자로 저렇게 말 하는 걸 보면 내가 빨리 나가길 바라나 보다. 아직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나도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집 검색을 위해 집으로 향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을 읽었는데 어찌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 마음에 안 들지만 메일도 몇 군데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는거 알았으면 옆집이 45만원에 올라왔을 때 바로 예약하는 건데 (무려 15만원 더 저렴)”  
- 캐나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갈등이 벌어지거나, 초기에 정착했던 홈스테이를 떠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1개월까지에서도 ‘홈스테이’의 언급이 높았지만 현지 문화에 대한 체험을 기대하는 등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3개월 차에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일 자리를 구하고, 현지에 점차 적응하면서 굳이 홈스테이가 아닌 방식으로 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홈스테이의 단점들, 상대적으로 비싼 종류의 주거지이며, 나아가 무작위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점 등이 부각된다.

“XX 슈퍼마켓에 가면 라면 김치 등 정겨운 한국 식재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위치도 내가 살고 곳이랑 가까워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 장을 본다... 꼭 한국에 마트를 방문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준다 가장 중요한 가격 가격도 한국에서 사는 가격이란 별반 다를 게 없다”  
- 아일랜드

“호주에서는 처음 커트를 했을 때는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은 괜찮게 자른 것 같다 물론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에 갔고 커트 가격은 22불 이었다 시티에도 한인 미용실이 5곳 이상 있다고 해서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골라서 갔는데 잘 잘라 주셔서 앞으로 계속 거기로 다니지 않을까 한다 그래봤자 한 달 반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 가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가도록 해야겠다”  
- 호주

“여행비용 어댑터가 어디있는지 물었고 짹짜게 구매했다. 약 11불이다. 한국에서 사온게 15000원 이었는데. 가격이 6000원정도 더 싸다. 진짜 시드니... 생필품(삼푸 등 조금) 외엔 몸만 와도 된다. 그렇게 어댑터를 사서 노트북을 충전하고 핸드폰을 충전했다. 전화가 5통이나 와있었고 보이스메일을 일일이 확인했다. 연락처를 다 적어놓은 뒤에 메일함 체크. 사무직 포지션에 긍정적인 연락이 와있었고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없어서 10분 뒤에 연락 하란다.”  
- 호주

‘가격’ 이라는 단어 역시 1개월 차에 비해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는 현지 사회의 물가에 대한 감각의 형성과 관심을 의미한다. 특히나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라면 당연히 생활 경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장을 보거나 일상에 필요한 지출을 하면서 한국과 비용을 비교하고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준다. 이는 앞의 주거지 변동과도 맞물려 적응 이후에 생존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본적인 주의사항과 손님 안내 테이블 세팅 테이블 정리 등을 배웠다  
그래도 이것저것 알바를 많이 해봐서 한 번 알려주면 눈치껏 다른 것도 할  
줄 아는 정도라 매니저도 꽤 만족스러워 (보인다). 오랜만에 일해서 그런지  
트라이얼(trial: 견습) 하면서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막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ㅋㅋㅋㅋ 그리고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실행 적이 없는데 벌써 두 달 넘게 일을 안 하니 좀이 쑤서 죽을 것 같다.  
트라이얼은 꽤 짧았다.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식사 무료제공과 2시간 일한  
값 15유로를 지급해줬다 여기는 트라이얼 한 것도 페이를 줘서 깜짝 놀랐다  
보통은 안 준다던데.”

- 아일랜드

“일은 시작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지긋지긋 ㅋㅋㅋㅋㅋㅋ 하긴  
그것도 그럴게 한국에서 20살부터해서 알바몬으로 살아온지 벌써 7년  
젠데 지겨울 만도하지 그리고 알바몬 7년차면 지긋함을 참는 법도 아주  
잘 알고있다 그래서 못 관둬ㅋㅋㅋㅋㅋㅋ 어젠가 일하면서 자리  
치우러 가는데 접시만 덩그러니 남은 빈 자리에서 이런 휴지도 받았다 헛  
ㅋ 이정도면 A급 알바몬 아님ㅋㅋㅋㅋ 뭐 ㅋ 딱히 팁을 바라고 친절하게  
열심히 일한 건 아닌데 ㅋ 정말이야 정말 가끔 아주 가끔씩 나에게 직접  
팁을 주는 손님도 있다. 사실 딱 두 번이다.”

- 아일랜드

<첫 알바 시작>

“D +65 연수 이후에 처음으로 일하러 가는 날!! 30분이나 일찍와가지고  
옷갈아입고 머해야할지 몰라서 멀뚱멀뚱 기다리고있는데 한시가 지나도  
매니저님들은 알바생하고 계속 얘기하시고 한시지난거 아시고는 아래로  
내려가란다. 내려가서 인사좀하고 뭐해야할지 몰라가지고 멀뚱멀뚱있다가  
야, 손 씻어야지하고 손 씻고 머 해달라고하는거 해드리고 맨처음에  
아라이(설거지) 먼저 배우고 얼음 푸는거 배우고 그러다가 매니저님이  
내려오셔서 다시한번 손씻고 롤플레이어라는거 따라해보고 입에 하나도...  
안붙는다...”

- 일본

“돈의 압박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학생일 때 일본으로 온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넘어 온거라 다른 애들에 비해 알바도 거의 안하고열심히 놀았다  
그래서 그런지일본생활 3개월이 지나니 슬슬 압박이 왔다 알바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이력서를 쓰고 인터넷으로 여러 회사에이력서를 제출하고  
신주쿠역에서 도보 15분정도 떨어진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다”

- 일본

2-3개월 차에는 동일한 단어라 하더라도 포스트의 내용이 참가자 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상기한 사례에서 위의 두 포스트는 ‘알바’라는 단어가  
현지에서 일과 한국에서 했던 노동 경험과 유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아래 두 포스트는 일을 구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거나, 일을 구하지 못해  
초조해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는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과  
현지에서의 상황에 따라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 감정 역시 보다  
다양하게 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번 포스팅에서 다음번 주제는 학교 액티비티라고 했으니 오늘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했던 액티비티들 생각나는대로 작성할게요 아래는 이번달  
액티비티 달력이예요.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액티비티의 큰  
틀은 같아요. 나이가가라 폭포 투어 윈더랜드 보트 크루즈 파티같이 큰  
액티비티는 매 달 있어요. 액티비티마다 가격도 다 제각각이에요”

- 캐나다

“저번에도 일상 포스팅에 등장했지만 한인 마트가 아닌 집근처 마트에서도  
김치를 팔더라고요. 처음에 세계적인 음식인줄 알았고 코워커들한테  
얘기가 김치가 뭔지도 모르길래 이런데서는 안 팔줄 알았는데 ㅎㅎ”

- 캐나다

<우프에 오다>

“음 일단 이 포스팅은 우프에 대한 포스팅이 아니다 삼 일 만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진을 포함한 좀 더 솔직한 내용은 우프를 떠나고  
쓰고자 한다 나쁜 말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이게 쓰고  
싶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자연친화적인 생활 그리고 새로운 경험으로  
충분히 신이 나있다 다른 포스팅을 다 경어로 하다가 워홀 카테고리  
편하게 쓰고자 결심한 것처럼 조금 더 솔직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일주일 혹은 조금 더  
머무를듯하다”

- 호주

3개월 차 데이터에는 다른 기간에 비해 ‘포스팅’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게 등장한다. 이 단어는 주로 블로그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신의 글을 지칭할 때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 보다 정보를 담은 글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라 할 수 있다.

1개월 차에 블로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공유와 함께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었다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생활에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쿨 했던 모습 실상은 다릅니다 50분 생각해보세요  
나와서 사고 먹고 정리하고 들어가고 끝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벤치에 앉아 대충 끼니를 때우고 일터로 돌아가는 것 입니다”  
- 뉴질랜드

또 아프거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등 긍정적인 감정 보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걱정이 앞서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6개월차의 부정적인 감정은  
외국에서 살아가는 단기 노동자로서 갖게 되는 외부 환경에 대한 것이다.

워킹홀리데이 초창기에 집이나 일자리를 구할 때의 어려움,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위 환경을 재설정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기존 정보나 현지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또 적응의 과정으로 인식되며  
극복 해야할 대상으로 그려졌다. 그렇지만 워킹홀리데이 생활이 이미 일상 생활이  
된 시점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 종류가 조금 다르다. 일상이 노동으로 가득차는  
것, 본국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것 등은 단기적인 사건 사고라기 보다는  
청년들이 해외에서 점유하는 위치와 그에 따르는 일정 전반에서 기인한다. 이때  
낭만적인 해외에서의 삶은 더 이상 성취해야할 목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일상  
생활에서의 생존 자체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2-4. 7~12개월  
포스트 개수 : 559개,  
추출 단어 개수 : 39848  
주요 단어 : 오랜만, 왔습니다. 도착

7~12개월의 경우에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가 12개월 간의 비자를 발급하는 데에 비해 현지에  
체류하는 기간은 유동적으로 개인마다 다르다. 수집한 블로그 중에서도 해당  
시기에 포스팅이 진행 된 경우는 25개 중 16개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7개의  
블로그의 사례는 12개월보다 짧은 기간의 워킹홀리데이를 기획했거나, 예상과  
달리 일찍 귀환을 하게 된 경우였다. 블로그 자체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여, 딱히 새롭게 나눌 이야기가 없고 일상에 큰 굴곡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일상을 정리하고 여행을 떠나는 등 워킹홀리데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들 영어도 잘해서 진짜 오랜만에 즐겁게 영어로 수다 떠는 것. 같다 일할 때  
하는 말이라고는 Hi How are you? Sorry. Thank you. 뿐이니까ㅋㅋㅋㅋㅋㅋ”  
- 아일랜드

이 시기에는 그다지 새로운게 없을 뿐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해외  
생활에 대한 기대 또한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노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회화를 배울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것으  
더 이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 기대가 충족된 낯선 사람들과의 ‘수다’는 예외적인  
일이 된다.

“오랜만에 담백한 일기 같은 글이다. 사실 나는 하루하루 특별하길  
바라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증거를 찾아 헤매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다.

한국에서의 스케줄표는 일주일은 물론 한 달 단위 크게 1년 단위로도 할  
일이 수두룩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걸 하나하나 클리어 해나가는 맛으로  
살아왔다. 호주에서 1년 사실 떠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건 정착 지역도 일자리도 영어도 아니었다. 무얼 해야 할까. 일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할까. 이 단순한 고민은 출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다”  
- 호주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초창기에 일상의 소소한 습관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차이를 느꼈다면,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삶에 보다 주목하여 현지와  
한국에서의 삶을 비교를 하기도 한다. 위 사례는 한국에서의 삶이 매일의 과업을  
설정하고 완료하는 방식이었다면, 호주에서의 삶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포괄적인 질문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곧, 삶 자체에 몰두하는  
시간으로서 워킹홀리데이를 보낸 사례를 보여준다.

“2월 중순에 시작한 워킹홀리데이는 벌써 절반을 넘어가고 있고, 하반기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되는 중이라 요새 기분이 좋다. 10월까지 리즈모어에  
머문 다음 11월부터 브리즈번에서 TESOL 코스를 수강하고 그 이후 약  
40일간의 여행을 떠날까 한다”  
- 호주  
“XXXX에서 스파클링 티 마시며 미국 여행 계획 정리하던 날. 이게 벌써  
거의 한 달 전이구나. 여행은 계획대로 착착 잘 다녀왔는데 내 컨디션은  
아직 여행 전으로 회복이 안됐다.”  
- 캐나다

“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남섬결국엔 갈까말까 고민  
많이 했던 문제의 그 남섬 네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ㅎㅎ 여행 고민 할 때  
많이 생각 했던 점은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 그리고 마음에 내키는 일인가

이 3가지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또 그 1주일이 낭비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 여행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것인가 갔을때 나중에 후회 할까 가지 않았을때 나중에 후회할까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가자 내가 가서 보고 기록하자 다녀와서 후회가 된다면 어쩔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여행이 시작 되었습니다 ㅎㅎ”  
-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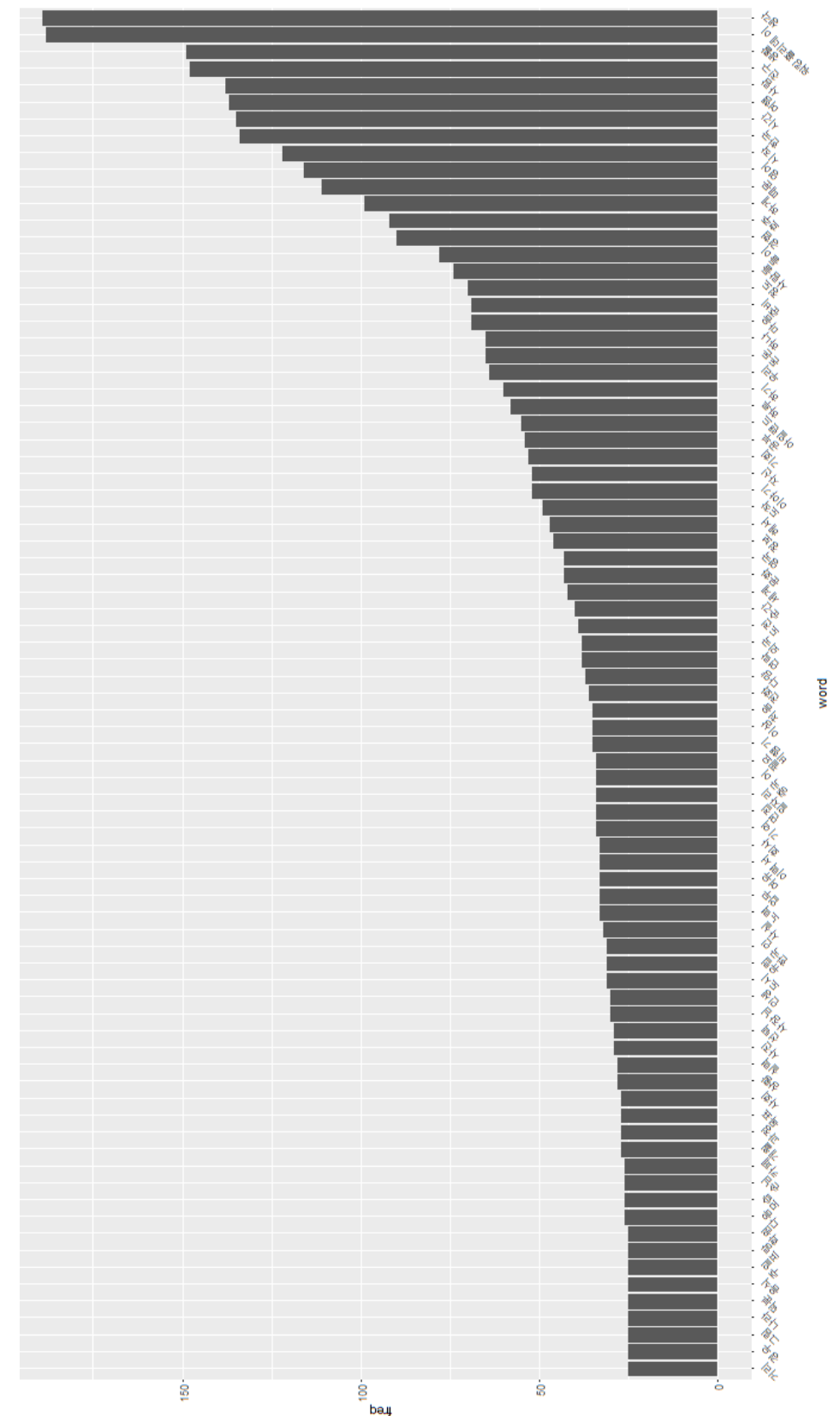
여행을 다녀오거나 ‘TESOL’ 등의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해 잠시 어학원을 다니는 등의 방식이 각자 워킹홀리데이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주요 단어인 ‘오랜만’, ‘도착’, ‘왔습니다’, 모두 여행과 관련이 있다. 이외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특정 도시나 지역의 이름이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여행을 많이 다녀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랜만’에 등장하는 블로그 게시물은 워킹홀리데이 마지막 즈음에 갑작스레 끊기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벌어지는 일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초기 정착에서 적응 과정, 그리고 일부 블로그에서 보이는 마무리 과정까지 나타난다. 일상의 세세한 경험이 등장하곤 하지만 이에 따른 해석은 즉각적인 감상의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후 3-3절에서는 주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수기를 바탕으로 워킹홀리데이 경험 전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3-3. 수기집 분석: 클러스터 분석

수기집은 tm 패키지를 통해 term document Matrix로 구성한 후 클러스터링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총 15개의 글에서 22,003개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그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 단어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수기집 단어 빈도 히스토그램



‘생각’이라는 단어가 189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워킹홀리데이(188), 생활(149), 친구(148)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9]  
수기집 단어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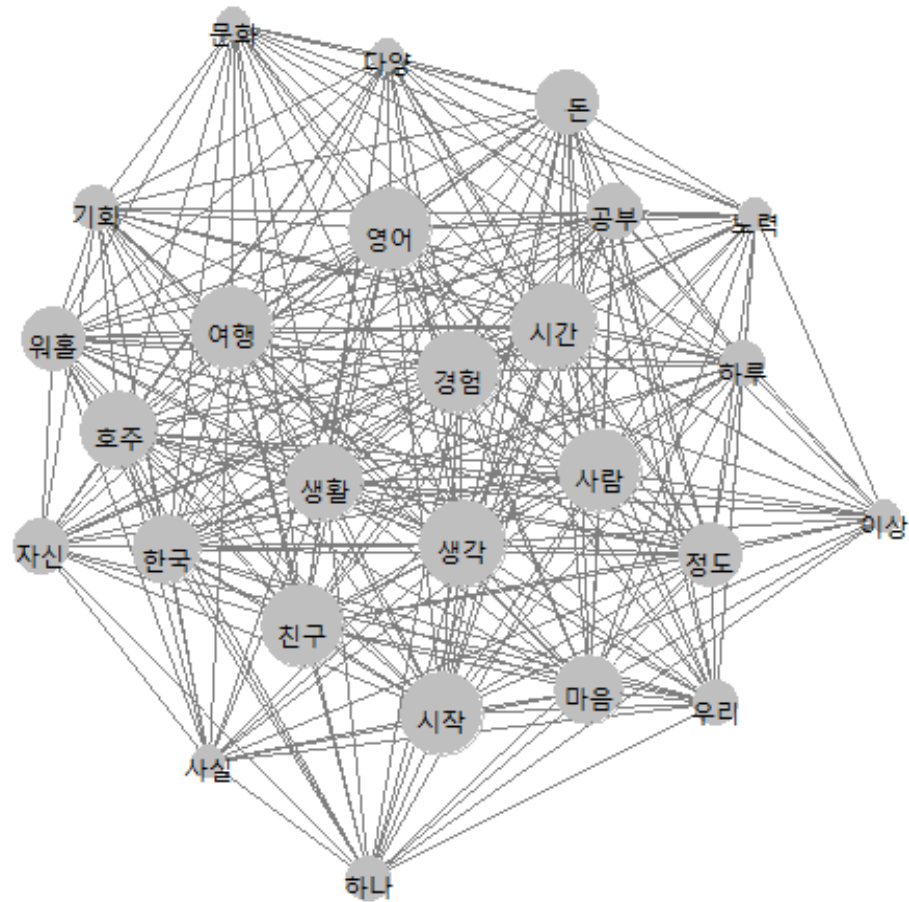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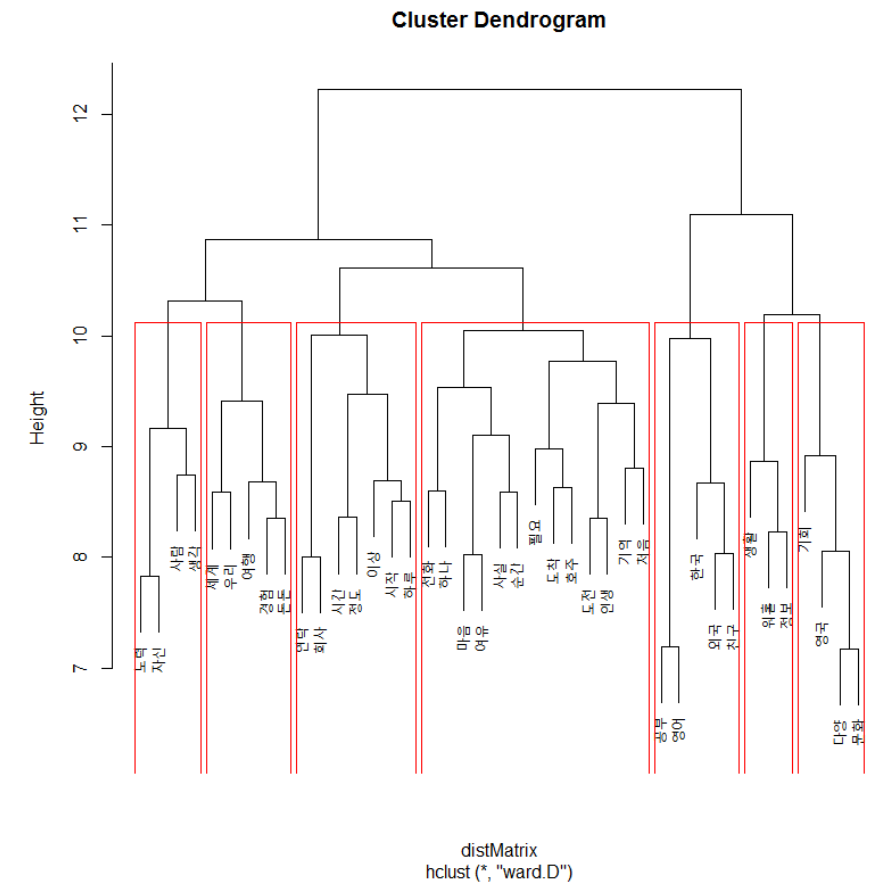
그림9는 수기집에서 주요 단어들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네트워크의 원(node)은 수기집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나타내며, 원들 사이의 선은 수기집 글 내에서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과 원 사이의 선이 여러 개 이어진 경우 글 내에서 공출현(co-occurrence) 빈도가 높은 것이다. 또한 원의 크기는 수기집에서 등장하는 해당 단어의 빈도에 비례하여 그려지도록 지정하였다. 수기집에 나오는 단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출현 단어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41개 단어를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그렸다.

네트워크의 중앙에는 출현 빈도가 많으면서 여러 단어들과 연결돼 있는 단어들이 위치 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험, 생각, 시간, 사람이 가장 출현 빈도가 높았고, 특히 경험과 시간의 거리가 가까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하는 시간’과 같이 워킹홀리데이 회상할 때 어떠한 ‘경험’이었는지를 의미화

하는 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은 다른 중심 단어에 비해 출현 빈도는 적었으나 생각, 한국, 친구, 경험, 여행 등의 다른 중심 단어들과 고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수기집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재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들이 함께 언급되었던 것이다.

이후 클러스터링 분석을 연관성이 높은 단어 그룹을 추출하였다. 클러스터 그룹을 추출 할 때에는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지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  
수기집 단어  
클러스터링  
덴드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수기집과 블로그 포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워킹홀리데이가 끝난 후 회고형으로 그 당시의 상황과 일들에 대해 다시 기술한다는 점이다. 회고형 기술을 통하여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들은 자신의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맥락화 한다.

3-3-1. 클러스터1: 생각, 사람, 노력, 자신(self/proud)  
 첫번째 클러스터는 생각, 노력, 사람, 그리고 자신이다. 이는 수기집 전반에서 드러나는 '노력'에서 '자신'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흐름과 연관이 있다. 한국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경유한다. 먼저 주거지나 일자리를 구하는데에 소요되는 노력,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해외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나아가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만들고자 어학 학습에 몰두하거나, 낭비하는 시간 없이 경험을 축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한국을 벗어나는 데에 성공하였지만, 생활 양식의 측면에서는 철저히 분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 내가 그때 대사관에서 일할 수 있었다라면 지금까지 내가 YMS 생활을 통해서 했던 많은 경험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현실에 안주하고 런던 생활을 편안하게 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잠시 좌절도 했지만 이후로 나는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을 알았기에 하루의 깨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영어에 노출시키려고 노력했다. 특별히 BBC iplayer와 BBC radio를 활용하여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때였다."

특히나 일상에서의 노력은 실패의 경험을 손쉽게 정당화해주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 구직의 기회를 놓친 경우에, 그의 구직 실패담은 오히려 이후의 삶에서 노력을 할수 있었던 계기로 해석되었다. 이때 구직의 어려움 같은 사회적 위치에 따른 위기는 철저히 사적인 문제로 귀결되며, 어떠한 사회문화적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청년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마도 한국으로의 귀환을 제외한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뿐이다.

일부 한국과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상에서의 노력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요청하는 노력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작업이자, 한국과 해외를 직/간접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외모를 가꾸는 데도 큰 노력을 쏟아야 하는데 그런 타율성이 좀 부끄럽다고 느끼게 됐다. 가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내가 미대를 나왔는지 생활비를 충분히 버는지를 궁금해했고 유럽 사람들은 이 일을 왜 시작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해볼 생각이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남의 인생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서도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크구나 하고 느꼈다. 예전에 내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그것이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격지심이 왜 들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얻는 기분이었다. 파란 눈의 꼬마들과 젊은 대학생들 유쾌한 관광객들의 얼굴을 종이에 담고 담소를 나누면서 나는 이제껏 다른 어떤 일로도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과 보람을 매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조건 흔히 스펙을 만족하지 못하면 탈락되지만 캐나다에서는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더 높이 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냥 내 바닥을 드러내기로 했다. '사실 난 지금 네가 하는 말의 반도 못 알아들을지도 몰라. 그만큼 내 영어 실력은 형편없어. 하지만 날 채용해주면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어. 그리고 그걸 위해 더 공부할 거야' 하며 Alicia의 대답 전까지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No problem!'이라고 말하며 날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와줄 거라고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

위의 두 사례는 워킹홀리데이 과정 중 한국에서 수행했던 노력과 다른 종류의 노력을 서술하고 있다. '남의 시선'에 맞추는 혹은 '스펙'이라는 규칙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한국이 설명되는 데에 반해, 해외는 생활과 일상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곳으로, 오히려 밑바닥을 드러내고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으로 기억되었다.

이와 함께 등장하는 노력은 워킹홀리데이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다. 식당에서 손님이 늦게 나가도 불평하지 않는 동료, 외국인 노동자로 비하되더라도 자신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등은 자주 등장한다.

"하루는 언제나 늦게 가시는 단골손님 때문에 나와 마이클 둘이서 마감 시간을 한 시간이나 넘도록 레스토랑을 지키고 있었다. 나도 꽤나 긍정적인 편이지만 그날은 집에 가기 싫어서 술을 끝도 없이 마시는 아저씨들 때문에 내가 집에 못 가는 상황이 조금 짜증 났다. 난 겨우 세 번째 겪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을 술하게 겪었을 마이클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했다. 아무리 단골손님이지만 솔직히 이럴 때 난 짜증 안 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아? 그러자 마이클이 대답했다. 그럴 때도 있긴 하지.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아. 저들은 이곳이 편해서 오는 손님 들이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웃으면서 '땡큐 마이클!' 해주면 보람 있고 좋더라. 생각하기 나름 이라는 말 마인드만 바꾸면 된다는 말은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정말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 마이클은 그렇게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독특하게도 프지리 파트에서는 누가 뭐라 소리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으며 일했는데 모두들 열심히

일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슈퍼바이저의 칭찬 때문이었다. 그는 실수를 장려하지는 않지만 실수를 했더라도 사람들을 다독였고 항상 우리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자주 표현해주었다. 칭찬의 리더십 덕분에 나는 좋은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고 호주에서의 일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퇴근을 늦게 하더라도 손님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나가면서 보람이 있다는 마이클을 만나면서 목도한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종류의 노력이다. 이 노력은 일종의 삶의 태도였으며,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한국 청년에게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모범적인 상사의 모습을 보여준 슈퍼바이저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만난 훌륭한 모델로서 이야기에 등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일상에서 기울이는 노력이 곧 자신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기제가 될 수 있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 어학 능력 향상을 비롯한 일상에서의 노력들은 한국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자신감은 생존의 측면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기반이 된다. 처음에 이 노력은 한국에서 '스펙'을 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의 체류를 지속해나가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의 질적 차이를 발견하고, 또 그에 기반하여 다른 방식의 삶을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체류지와 한국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 3-3-2. 클러스터2: 세계, 경험, 우리, 돈, 여행

두번째 클러스터는 세계, 경험, 우리, 돈, 여행이다. 이 키워드들은 앞서 워킹홀리데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홍보하고자 하는 정부 그리고 관련 산업의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고,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다'(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2016)는 설명은 자신의 워킹홀리데이를 경험을 설명하고자하는 청년들에 의해 역으로 다시 한 번 발화된다.

"지난 일 년 동안 나는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미흡한 그림까지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자신감을 가장 큰 수확으로 거두어 왔고 또 여유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행운일 것이다. 앞으로는 나는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그 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여행은 내 삶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way라는 영어 단어는 내 10개월간의 호주 생활을 간단하게 설명 해준다. 내게 워킹홀리데이 기간은 Work 일하고 Act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며 know

Yourself 너를 알아라! 라는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인생길(way)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으며 그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way)를 배웠다."

경험이라는 단어는 워킹홀리데이 기간 전반을 설명할 때에 등장한다. 이때 경험은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건들의 총합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의 체류한 시기 전반을 추상적으로 포괄한다.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서 보낸 1년이 곧 일종의 '여행'이었으며, 이 여행을 통해 '삶의 길'을 찾았다는,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긍정적으로 경험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유의미하게 하기 위한 시도는 체류 중에도 이어지는데 '여행'은 그 주요한 수단이다. 워킹홀리데이 자체를 '여행'으로 비유할 뿐 아니라, (특히 일정 기간 노동을 집중적으로 한 경우) 여행을 통해서 워킹홀리데이를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간 고생을 통해 모은 돈을 모두 여행에 투자하고 한국으로 귀국 하고 싶었다. 꽤 많은 돈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들을 경험 해보고 싶었던 만큼 계획을 짜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호주에서의 여행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짧은 기차 여행이든 다른 주로 떠났던 장기간의 여행이든 낯선 여행길은 항상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혼자만의 사색으로 나를 돌아볼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고 의도치 않은 새로운 경험에 나를 밀어 넣게 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속해 있던 사회와 문화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와 마주할 수 있었다.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10개월의 워킹홀리데이는 너무 값지다."

수기집 전반에서 워킹홀리데이 과정 중에 여행을 떠나는 경험은 자주 등장하고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여행은 그간 해외에서 노동을 하면서 한 고생의 대가이자, 그 고생 이후에 워킹홀리데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한 청년에게 여행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기로 의미화되었는데, 이는 클러스터1의 연장선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간이 된다.

'돈'이라는 키워드가 경험, 여행과 함께 등장하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워킹홀리데이의 정의에서 '취업'이 한 가지 가능한 경우로 언급은 되지만,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에게 돈은 여행 그리고 경험과 함께



주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돈을 받고 연결시켜준다는 에이전시도 무척이나 많았다. 처음에는 돈을 주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지만, 내 손으로 시작하는 것이 젊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믿었다. 며칠 밤에 걸쳐 정보를 모으던 나는 드디어 지역 이동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다."

"나의 워홀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 공부를 하든 문화 체험을 하든 하루하루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잠시 돈에 현혹되어 본질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 정착금만 들고 와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을 벌면 워홀 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몸도 한 번 뿐인 워홀 생활도 망치는 지름길을 택했던 것이다."

눈여겨 볼 점은 '돈'이라는 키워드가 경험, 여행과 함께 등장한다는 점이다. 애초에 경제적으로 어학 연수에 접근할만한 자원이 없었던 사례에서 나아가, 워처럼 취직의 과정이나 일상을 보내는데에 돈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슈였다. 현지에서 체류 비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충당하고자 할 때에 한국 청년들은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노동이 주로 사회 기충부의 서비스직 단순 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 시장과 함께 생존해나가면서 돈은 일상을 때때로 또 자주 일상을 잠식하기도 한다.

"그렇게 떠난 여정 속에서 나는 많은 도시를 둘러볼 수 있었다. 사실 호주에서의 매 순간은 선택의 기로였고 안정된 곳을 두고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 차가 고장 나기도 했고, 심지어 집을 구하지 못해 텐트 생활을 오랫동안 한 적도 있다.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를 겪고 추위에 떨며 차에서 잠잘 때면 나도 따스한 집이 그리워지곤 했다. 남들이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고 물어볼 때면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여행에 쓰는 것이 가끔은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 여행지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고 역경 속에서도 견디며 도전하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과 워킹홀리데이의 과정 속에서 다시 세운 계획과 목표 비전들이 다 옳은 것이고 최선이라 여겼었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결과들이 금방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판단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무너진 틈 속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몫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작이 순탄치 않았음에도 결국에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값진 기억들과 돈, 영어, 여행, 경험, 사람 모든 것을 얻고 돌아간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홍보하는 정부와 산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서사와 수기집에서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서사에서 유사한 키워드가 도출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성격은 결코 같지 않다. 전자가 청년으로서의 낭만과 모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년에 의해 다시금 이루어지는 후자의 서사는 보다 현지에서의 생존과 생애 기획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수기집에서는 자신들이 경험한 워킹홀리데이가 결코 매끄러운 성공담이 아니며, 기존의 목표와 계획을 철저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고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력과 판단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발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위에서 워킹홀리데이 이후의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 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결코 긍정과 부정 혹은 사건, 사고 등의 단편적인 언어로 워킹홀리데이 과정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3-3-3. 클러스터3: 나눔, 순간, 여유

세번째 클러스터는 나눔, 순간, 여유이다. 한국에서 살아왔던 연속적이고 익숙한 삶에서 워킹홀리데이는 일종의 분리된 시간을 마련해준다. 나눔과 순간, 여유와 같은 키워드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해외로 갔을 때의 장면을 묘사하거나, 특별한 일 혹은 분위기를 회고, 회상하는데 사용되었다.

"시드니의 오후는 따뜻하고 항상 생기가 넘쳤다. 그 시간마다 호주 사람들은 공원으로 나와 오후의 여유를 즐겼다. 나도 일이 일찍 끝나면 공원으로 나가 호주 특유의 여유를 즐기곤 했다.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것은 분명 나의 낙이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이었다. 이들과의 시간은 내 워홀의 삶에 생기를 더해주었다. 하루하루 눈부신 햇살이 초록 잔디의 생기를 더해주듯이."

"밴프에 도착한 내가 제일 처음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다름 아닌 Lake Louise였다. 드디어 캐나다가 주는 특별함에서 언급했던 Lake Louise를 결국 갈 수 있게 되었다. 벌써 이 글을 쓰기 일 년 전 일이지 만 아직까지도 눈을 감으면 그 광경이 생생히 그려진다. 그곳에 도착 한 나는 벽차 오르는 감동과 전을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하루 종일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 지는 순간이었다."

위의 청년은 노동의 시간 이후에 일상을 즐길 수 있었던 시작점으로 공원에서 보낸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을 꼽았다. '멍하니 벤치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며 원했던 바를 이루었다고 회상하는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이들은 워킹홀리데이에서의 특정한 시기나 사건보다는 일상을 휩싸고 있는 분위기에서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쉬자' 라는 마음으로 아일랜드 행을 결정했던 나였기에 그런대로 아일랜드의 삶을 즐길 수 있었다. 마음을 여유롭게 먹자고 다짐하며 모든 일들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이곳의 운율에 맞추어 가자고 마음 먹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가끔씩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삶 주말에는 근교로 산책을 가기도 하면서 6개월을 보냈다. 여유가 답답함이 돼버리는 순간을 견디며 이를 즐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간 것이다."

여유로운 분위기는 다시금 클러스터1과 클러스터2에서 한국과 해외를 비교하고 각 사회에 속한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의 단초가 된다. 여유로운 분위기는 워킹홀리데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낭만적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요소이지만 동시에 적응해야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년이란 기간 동안 워홀을 오지 않았더라면 난 아직도 똑같은 회사 책상에 앉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아무런 소중한 추억 없이 지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에서 보낸 이 년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잊지 못할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침반이 되어준 소중한 기간이었다.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30년 뒤 내 노후를 위해 저축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행복해서 즐겁다. 많은 걱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단순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눈이 마주치면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짓는 이 여유로운 동네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들이 사는 방식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됐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주 뚱뚱한 여자가 몹시 짧은 치마와 형형색색의 민소매 망사 스타킹과 하이힐 차림으로 다니는 모습을 본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저렇게 못 입고 다닐 텐데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하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은 남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가진 다름을 굳이 지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의 사례에서 청년은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한국에 있었다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였을 수 있었을 지언정 행복을 위한 방법을 배우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회상하였다.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워킹홀리데이의 낯선 시기는 걱정에서 벗어나고, 단순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을 마련해주었다.

순간이라는 키워드는 해외에서의 생활을 회상할 때 등장한다. 이때 떠오르는 장면 장면은 끊임없이 한국 사회와 비교되면서, 한국에서라면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지된다. 이는 해외로의 이동을 통해 한국 청년이 가질 수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천편일률적인 가치 체계와 삶의 기획을 요구하는 한국으로부터의 시공간적 분리였음을 의미한다.

수기집에서 나타나는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사회적 맥락과 청년의 삶 속에서 해외 현지에서의 시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여준다. 블로그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워킹홀리데이가 새로운 곳에서 일상을 발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면, 수기집에서는 주로 추상적인 언어가 동원되어 워킹홀리데이 시기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경험에 대한 의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분석이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수기에 한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미화 과정 중에 한국 사회에 대한 (재)분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형성과 활성화 과정을 살펴보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가 작성한 재현물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보다 많은 수의 경험을 통해 포괄적인 연구진행을 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하였고, 빈도수를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를 찾아 재현물에서 드러나는 청년들의 발화를 역으로 추적하였다. 애초의 기대는 빈도를 기반으로하여 단어 간 연관성을 찾아 워킹홀리데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수집하는 데에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 청년들이 벌이는 각자의 경험은 연구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 다단한 양상을 보였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수집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블로그와 수기집을 통해 엿본 한국 청년들의 경험은 해외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가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 사고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는 데에는 충분하였다. 한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워킹홀리데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에피소드로 기억되곤하는 사건, 사고에 있지 않으며, 현지에서 그들이 형성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일상에서 기인한다. 해외에서 일상을 구축하는 과정은 '외국인'으로 지시되는 과정이자 사회 기층부의 '노동자'로 자리매김되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몰두한다는 것, 그를 위한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는 것이 워킹홀리데이를 의미화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들을 글로벌 영역에서의 착취의 대상으로 여길 수는 없다.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강정석. (2015년 12월 8일). '난민'이 된 한국 청년. "헬조선 다시 읽기".

그래미 휴고, 조지 탄, 최서리, 홍성호. (2013). "농업분야 외국인력정책: 호주와 캐나다 사례연구" (제 01). IOM이민정책연구원.

기욤 르 블랑. (2014). "안과 밖: 외국인의 조건." (박영옥 역) 글항아리.

김난도. (2010). "아프니까 청춘이다: 인생 앞에 홀로 선 그대에게." 쌤앤파커스.

김석민. (2009). 호주 워킹홀리데이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외교부".

김선기. (2014). 청년들, 청년세대담론을 해체하다. "청년허브 연구보고서".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김현미. (2010).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과 이주 통제세. 김현미, 권수현, 김고연주, 박성일, 정승화, 강미연,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민슬기. (2011). 스페인 산티아고 길 도보순례의 의미와 소비.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권일, 우석훈. (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서동진. (2009). "자유 의지 자기계발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스미스 P 마이클. (2010). "초국적 도시이론." (홍준기, 남영호, 이현재 역) 한울아카데미.

심홍진, 김용찬, 손혜영, 임지영. (2011).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5(4). 82~138

심재천. (2012). "나의 토익 만점 수기." 웅진지식하우스.

우승현. (2015). 한국 청년의 임시 이주와 글로벌 이동 경험: 아일랜드에서의 워킹홀리데이와 어학 연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민영. (2012). 의료 순례로서의 인도 요가 수련 여행.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강명. (2015). "한국이 싫어서." 민음사.

정남구. (2014년 8월 29일). 학벌·학점·토익·어학연수·자격증·봉사활동·인턴 경험·수상 경력·성형... 갈수록 더해진 '필수 스펙 잔혹사'. "한겨레".

정민우, 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130~175.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비정규직·노동현안 TFT. (2015).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정의당.

조문영. (2013).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한 대기업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 한국 사회 '반(反)빈곤'과 '대학생'의 지형도. "한국문화인류학", 46(2), 45~91.

조혜정. (2010). 후기 근대 세대 간 갈등과 공생의 전망: 1990-2000년대 한국 사례의 교훈. "人文科學", 92, 87~117.

\* 해외 문헌

Bauböck, Rainer. (2011). Temporary migrants, partial citizenship and hypermigration.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14(5), 665~693.

Carens H, Joseph. (2008). Live-in Domestic, Seasonal Workers, and Others Hard to Locate on the Map of Democracy.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6(4), 419~445.

Castles, Stephen. (2011). Migration, Crisis, and the Global Labour Market. "Globalizations Publication details, including", 8(3), 311~324.

Goss, Jon, Bruce Lindquist. (1995). Conceptualiz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 Structuration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2), 317~351.

Kofman, Eloeonore, Annie Phizacklea, Parvati Raghuram, Rosemary Sales. (2000).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Routledge.

OECD. (2015).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5." OECD.

\* 정부 자료 및 기타 자료

Austrailian Govern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2016).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http://www.border.gov.au/Trav/Visa-1/417->

Government of Canada. (2016). “Determine your eligibility –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Korea, Republic—Working Holiday”. <http://www.cic.gc.ca/english/work/iec/eligibility.asp?country=kr&cat=wh>

MBC. (2015년 11월 9일). 행복찾아 삼만리. “다큐스페셜”.

Newzealand Immigration. (2015). “Working Holiday Schemes Online: questions and answers”.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general/generalinformation/qanda/whsonline.htm>

대한민국정부. (2008).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아일랜드정부대한민국정부. (2009). 아일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영사서비스과. (2011년 9월 19일).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영사서비스과. (2011년 4월 18일). 워킹홀리데이.

영사서비스과. (2014). “워킹홀리데이 실태파악 설문조사 상세내역.”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2015). “워킹홀리데이 실태파악 설문조사 상세내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2016). <http://whic.mofa.go.kr>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2016).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html](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html)

[첨부1] 6개월 이상 한 업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규칙의 예외 상황 (Applying for permission to work beyond six months with one employer)  
(출처: Ausrai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http://www.border.gov.au/Trav/Work/Empl/WHM-six-months-one-employer>)

#### Au pairs

From 21 July 2015, permission to work longer than six months with an employer may be given where a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or Work and Holiday (subclass 462) visa holder has been employed as an au pair with a family and is seeking to continue that employment for a further period.

To be considered an au pair, your primary responsibility must be the care of a family's children, rather than any domestic work. The youngest child being cared for should not be older than 12 years of age (that is, primary school age or younger).

You can work as an au pair in any part of Australia.

#### Certain industries in northern Australia

From 21 November 2015, you may be eligible for an employment extension to work beyond six months with one employer if you work in certain industries in Northern Australia.

#### Aged and Disability Care

The following work activities are eligible :

- Aged Care Residential Services
- Disabilities assistance services
- Aged care assistance services
- Aged or disabled carer

#### Agriculture

The following work activities are eligible :

- plant and animal cultivation
  - the harvesting and/or packing of fruit and vegetable crops
  - pruning and trimming vines and trees
  - Note: This must be the applicants primary employment task and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cultivation and commercial sale of plant produce, such as fruit and nut crops (commercial horticultural activities). General garden maintenance is not eligible.
  - general maintenance crop work
  - cultivating or propagating plants, fungi or their products or parts
  - immediate processing of plant products
  - maintaining animals for the purpose of selling them or their bodily produce, including natural increase
  - immediate processing of animal products including shearing, butchery, packing and tanning
  - Note: Secondary processing of animal products, such as small goods processing and retail butchery is not eligible.
  - manufacturing dairy produce from raw material.

- fishing and pearling
  - conducting operations relating directly to taking or catching fish and other aquatic species
  - conducting operations relating directly to taking or culturing pearls or pearl shell.
- tree farming and felling
  - planting or tending trees in a plantation or forest that are intended to be felled
  - felling trees in a plantation or forest
  - transporting trees or parts of trees that were felled in a plantation or forest to the place where they are first to be milled or processed or from which they are to be transported to the place where they are to be milled or processed.

Construction

The following work activities are eligible :

-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heavy an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 land development and site preparation services
- building structure services
- building installation services
- building completion services
- other construction services.

Mining

The following work activities are eligible :

- coal mining
- oil and gas extraction
- metal ore mining
- construction material mining
- non-metallic mineral mining and quarrying exploration
- mining support services.

Tourism and Hospitality

The following work activities are eligible :

- work in a range of positions where the primary purpose is to directly provide a service to tourists, including tourist guides and operators, outdoor adventure or activity instructors, tourist transport services
- gallery or museum managers, curators or guides
- hospitality workers, including a range of positions in hotels or other accommodation facilities, restaurants, cafes, bars and casinos

conference and event organisers

7

첨단·지식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표준 마련  
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조사연구  
구로노동자조사그룹

시간 별례	요일평균 (표본)	일주일전체(표본)
하루 노동시간	6시간 44분	47시간 10분
업무 중 휴식시간	1시간 10분	8시간 10분
업무 중 식사시간	31분	3시간 40분
출근 통근시간	49분	5시간 45분
퇴근 통근시간	48분	5시간 35분
수면시간	7시간 3분	49시간 20분
업무 외 식사시간	36분	4시간 15분
개인유지	58분	6시간 40분
가사노동시간	3분	20분
직무 관련 개인학습	23분	2시간 40분
여가시간	4시 24분	30시간 45분
기타 의무(통근 외 이동 등)	31분	3시간 40분
총계	24시간	168시간
업무 최대지속시간 (5일평균)	4시간 3분	-
회사 잔류시간 (5일평균)	11시간 54분	-
필수생활시간	9시간 8분	63시간 55분

7  
첨단·지식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표준 마련에 관한 탐색적 연구